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6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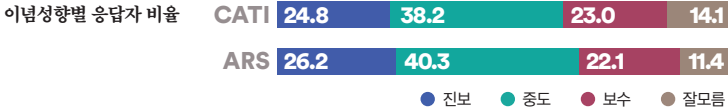
제51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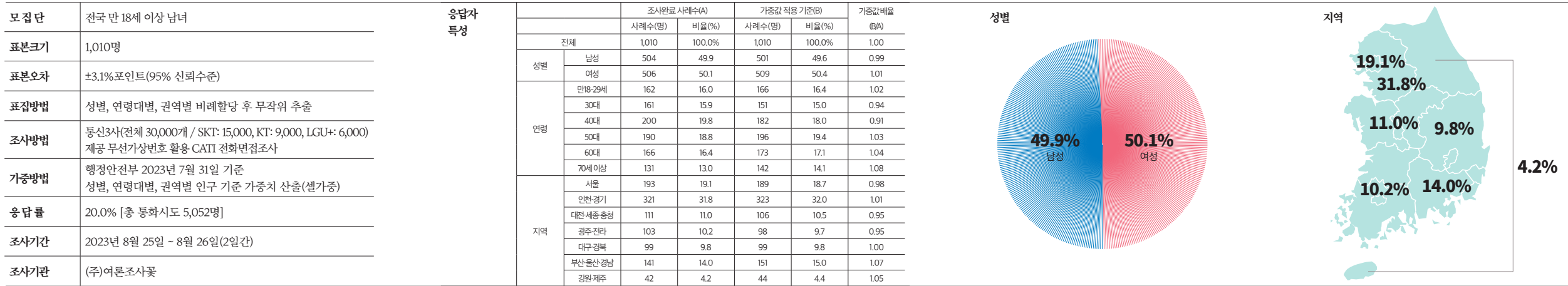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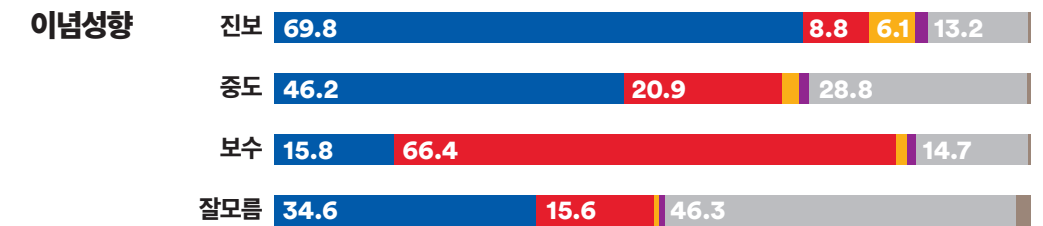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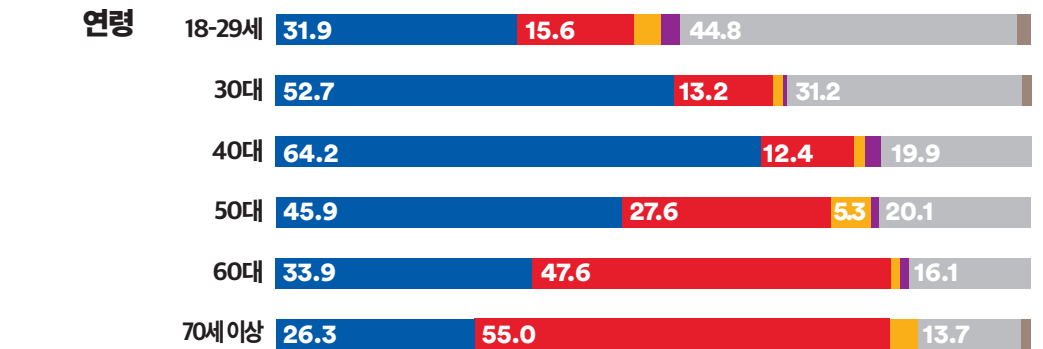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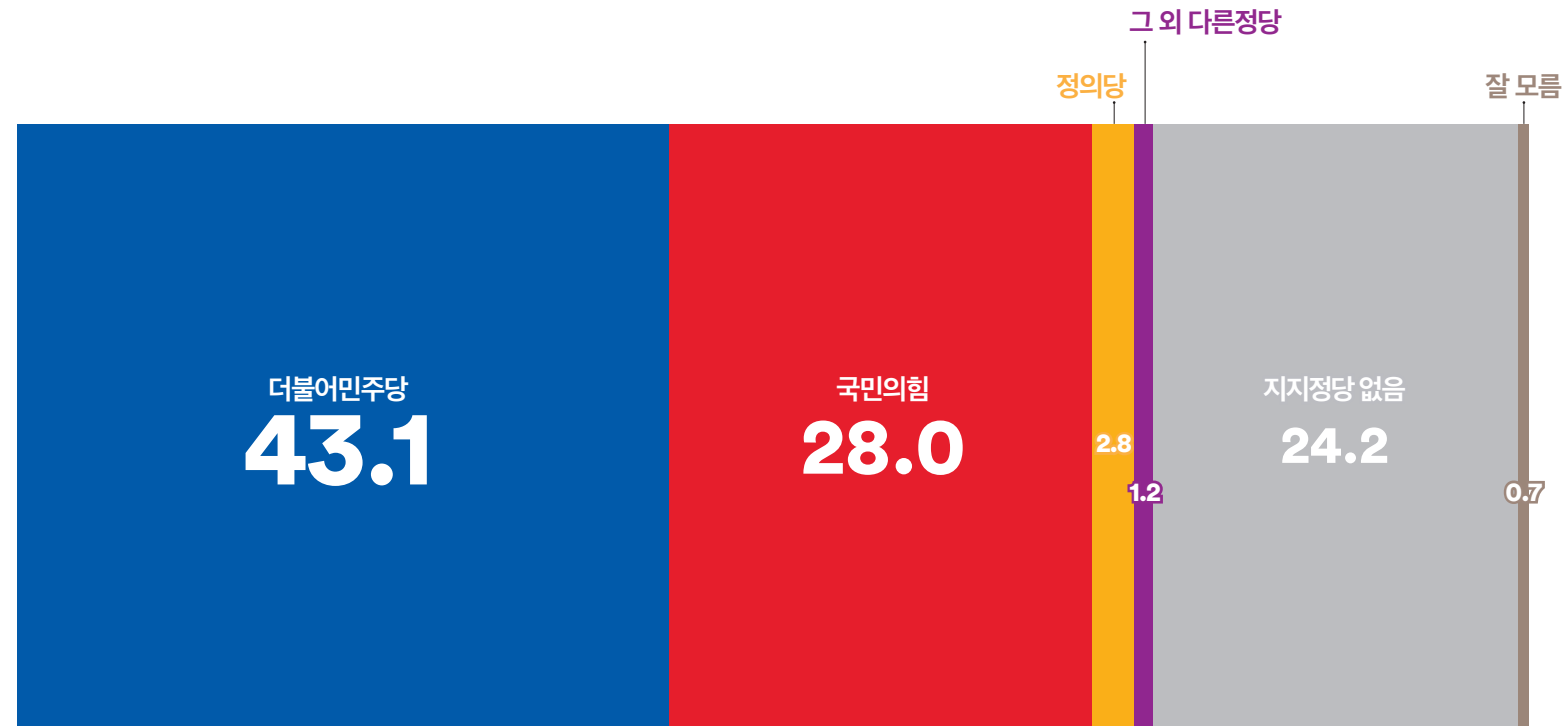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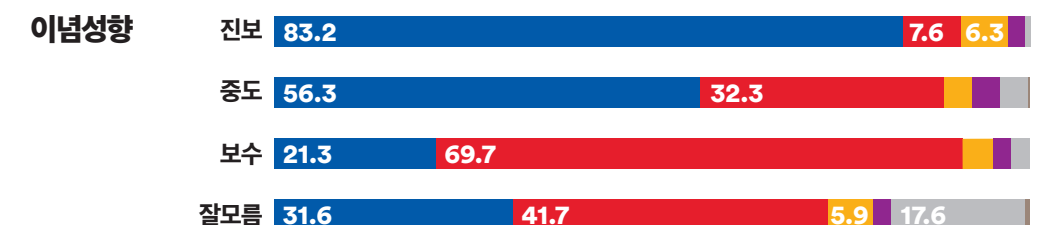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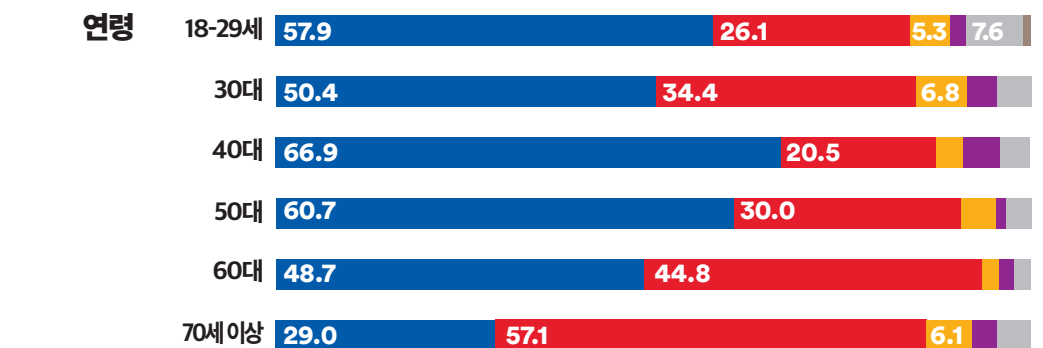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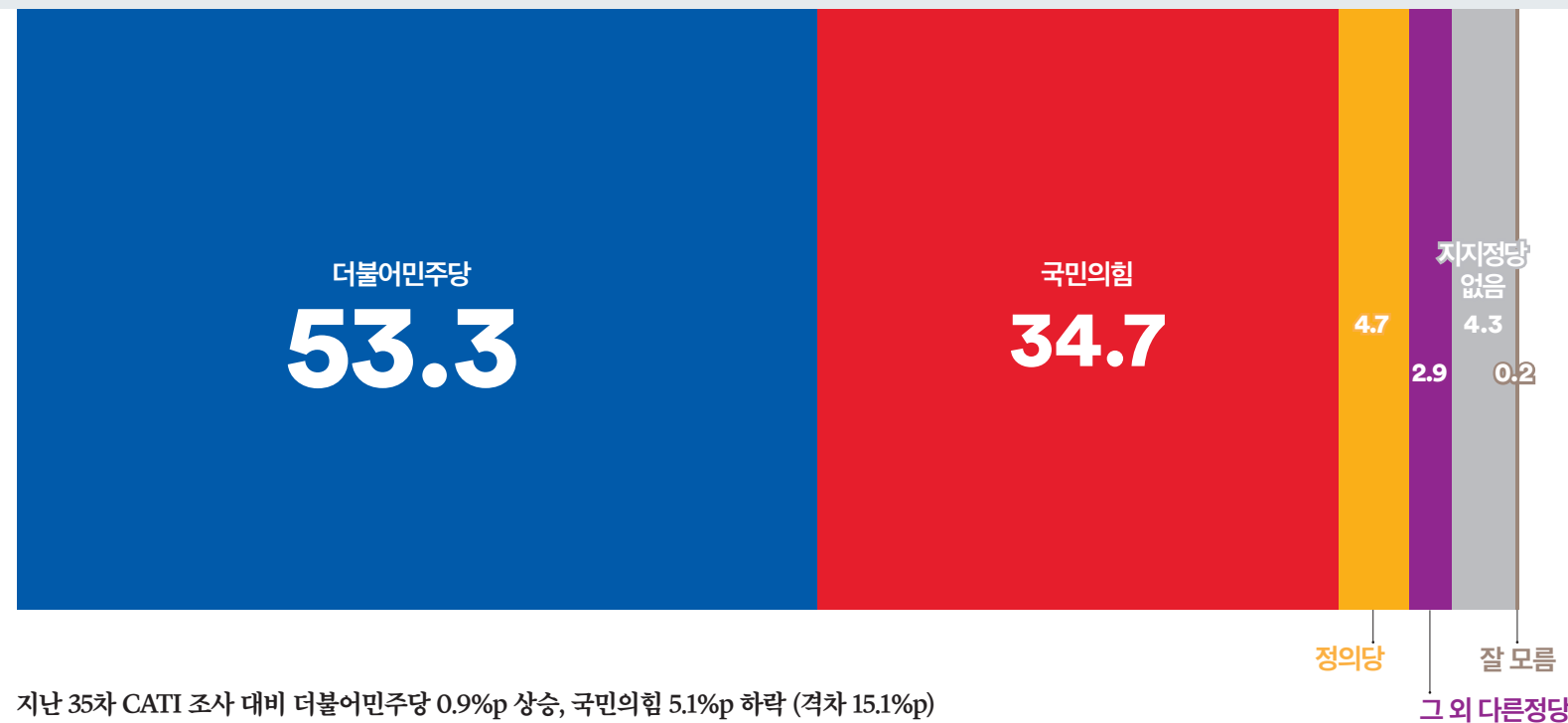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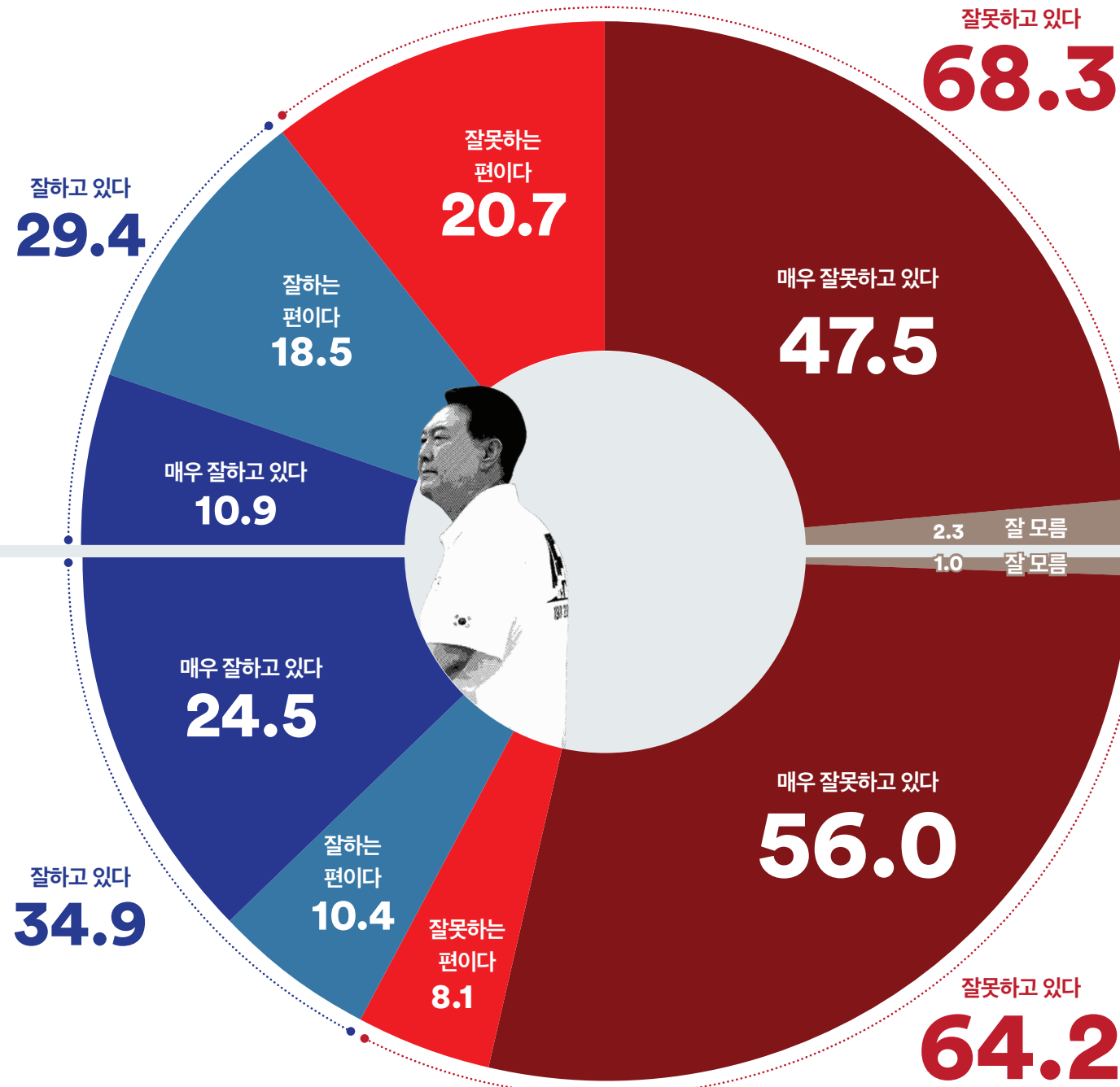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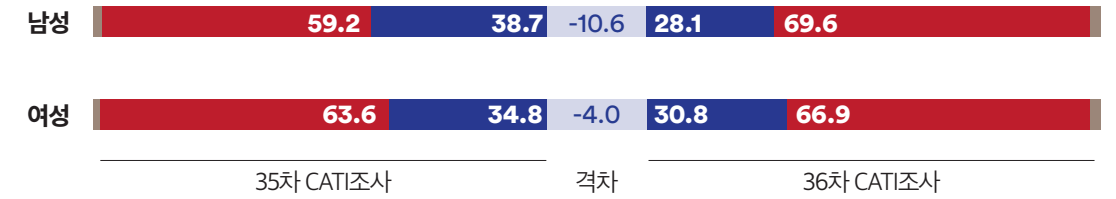
지난 35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9%p 상승, 국민의힘 5.1%p 하락 (격차 15.1%p)
 지난 50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6%p 상승, 국민의힘 3.4%p 하락 (격차 18.6%p)
 모든 성별, 50대 이하(ARS 60대 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보수층과 70대는 국민의힘 앞섬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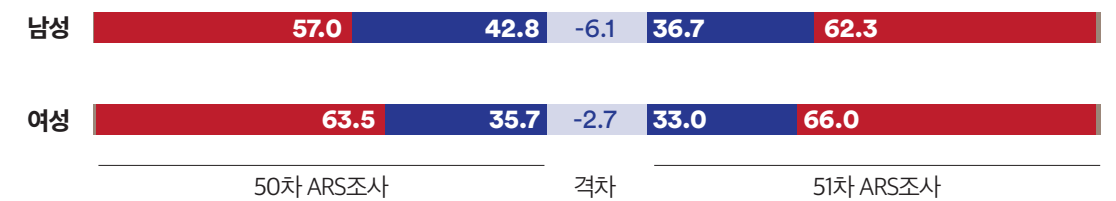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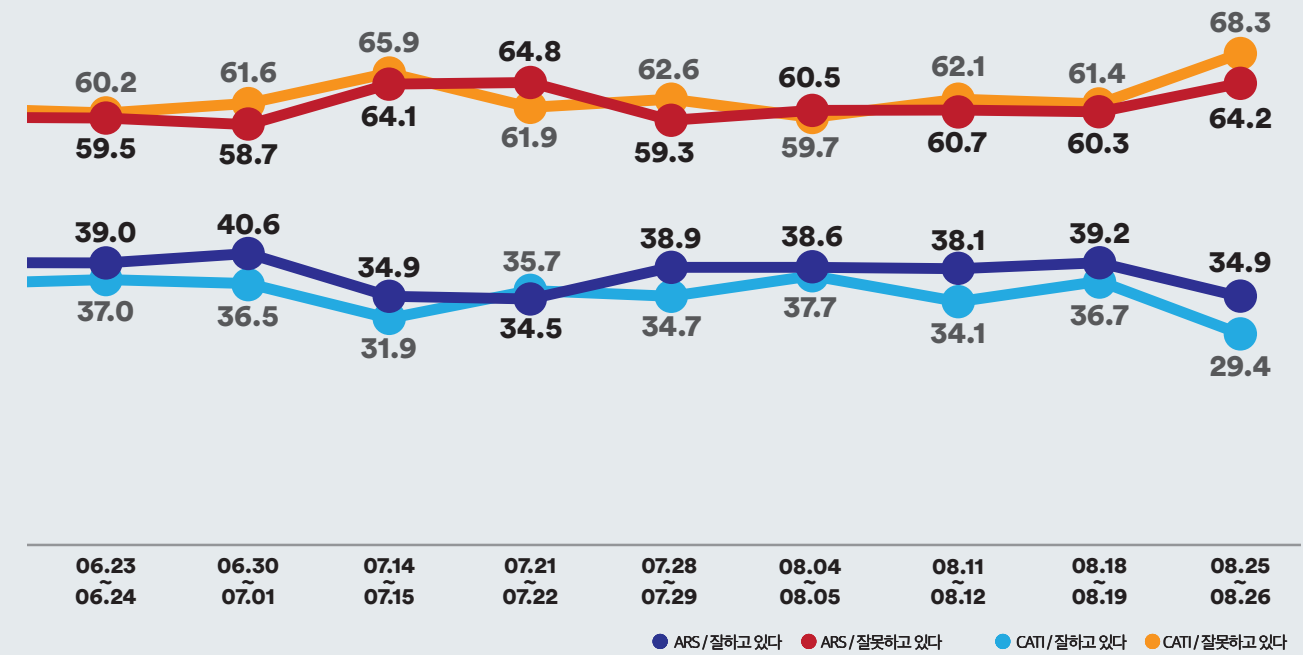
CATI



지난 35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7.3%p 하락, 부정평가 6.9%p 상승 (격차 38.9%p)
 지난 50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4.3%p 하락, 부정평가 3.9%p 상승 (격차 29.3%p)
 50대 이하는 부정 평가, 70세 이상 (CATI 60대 포함)은 긍정평가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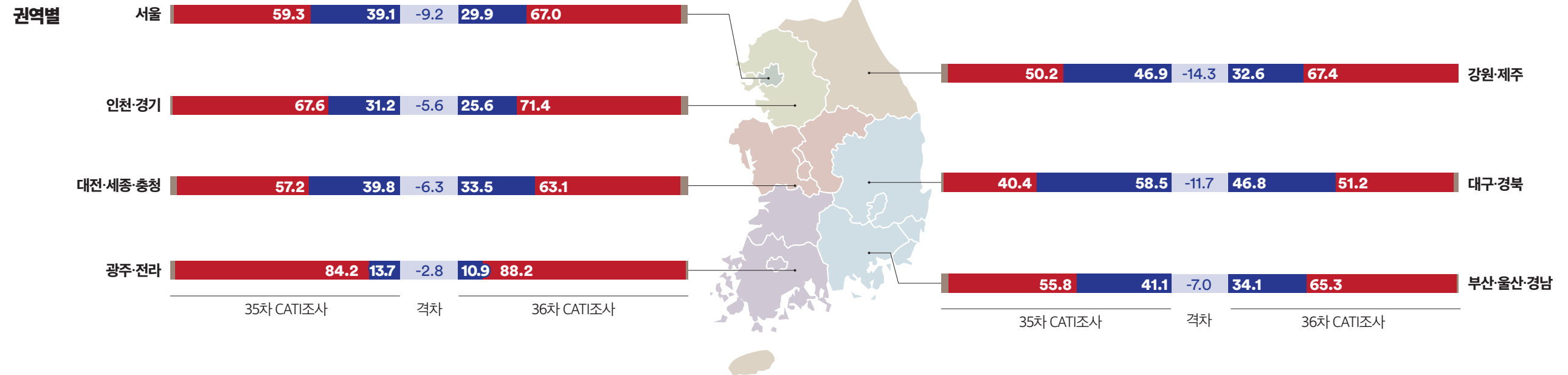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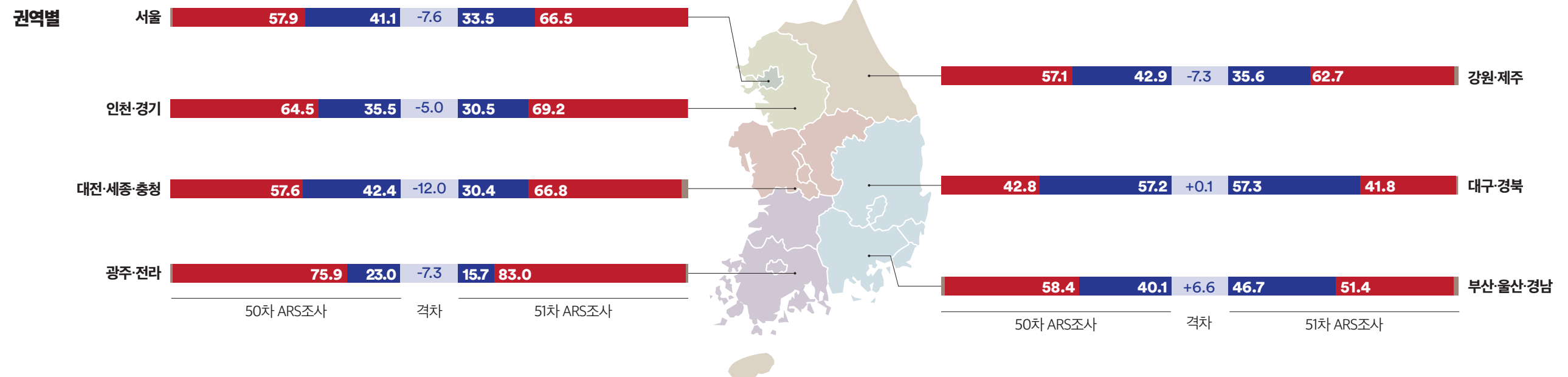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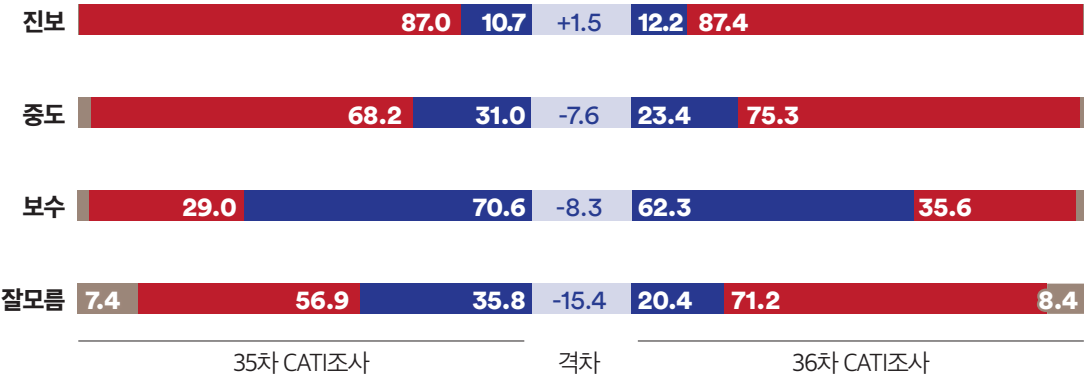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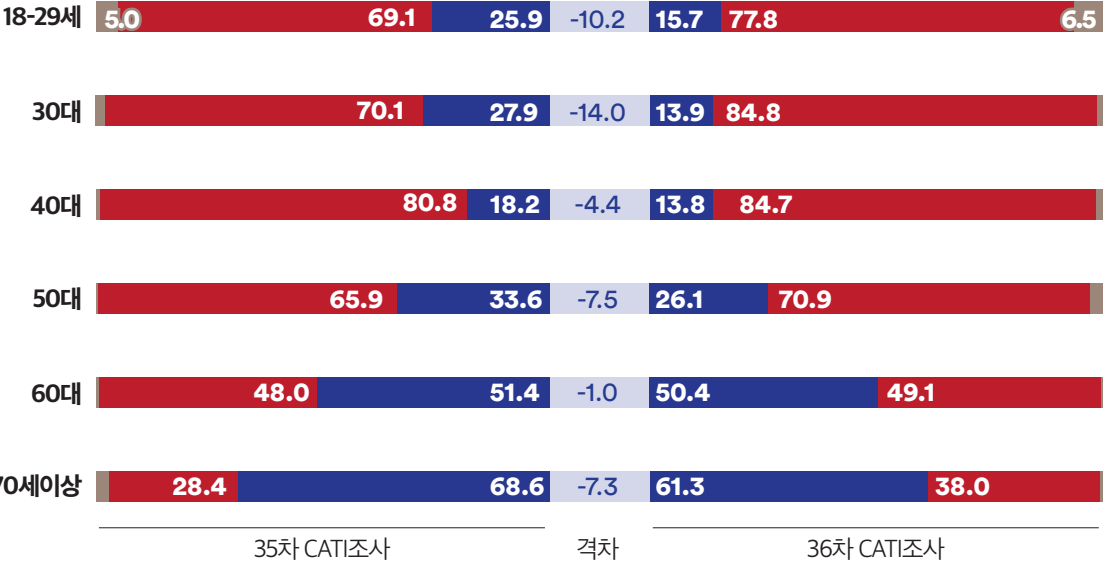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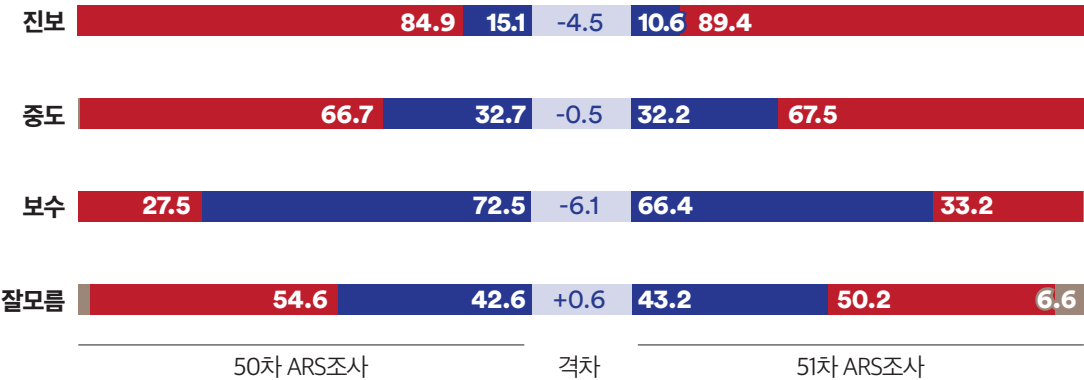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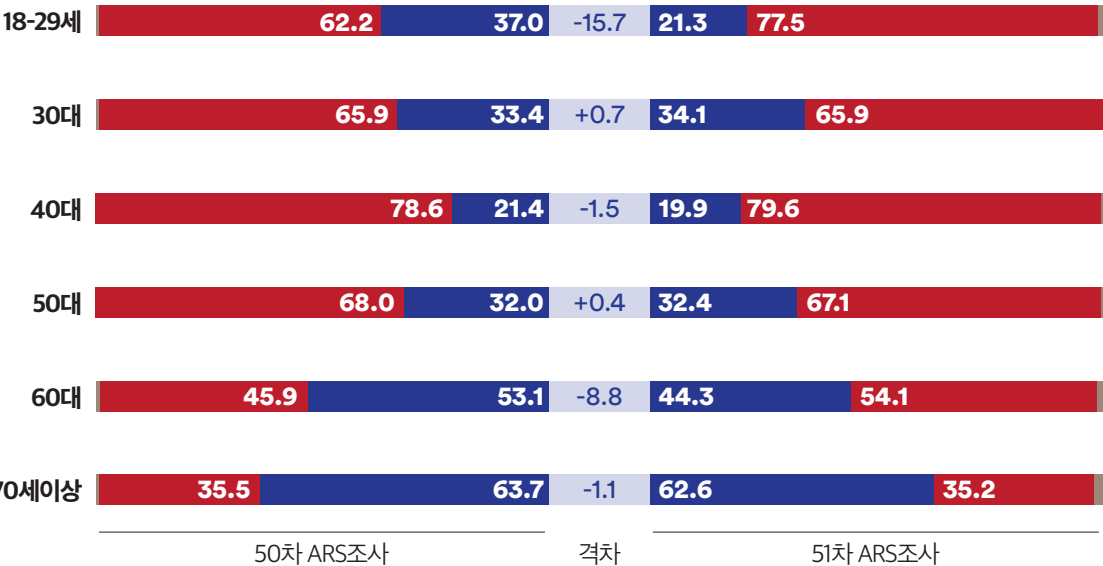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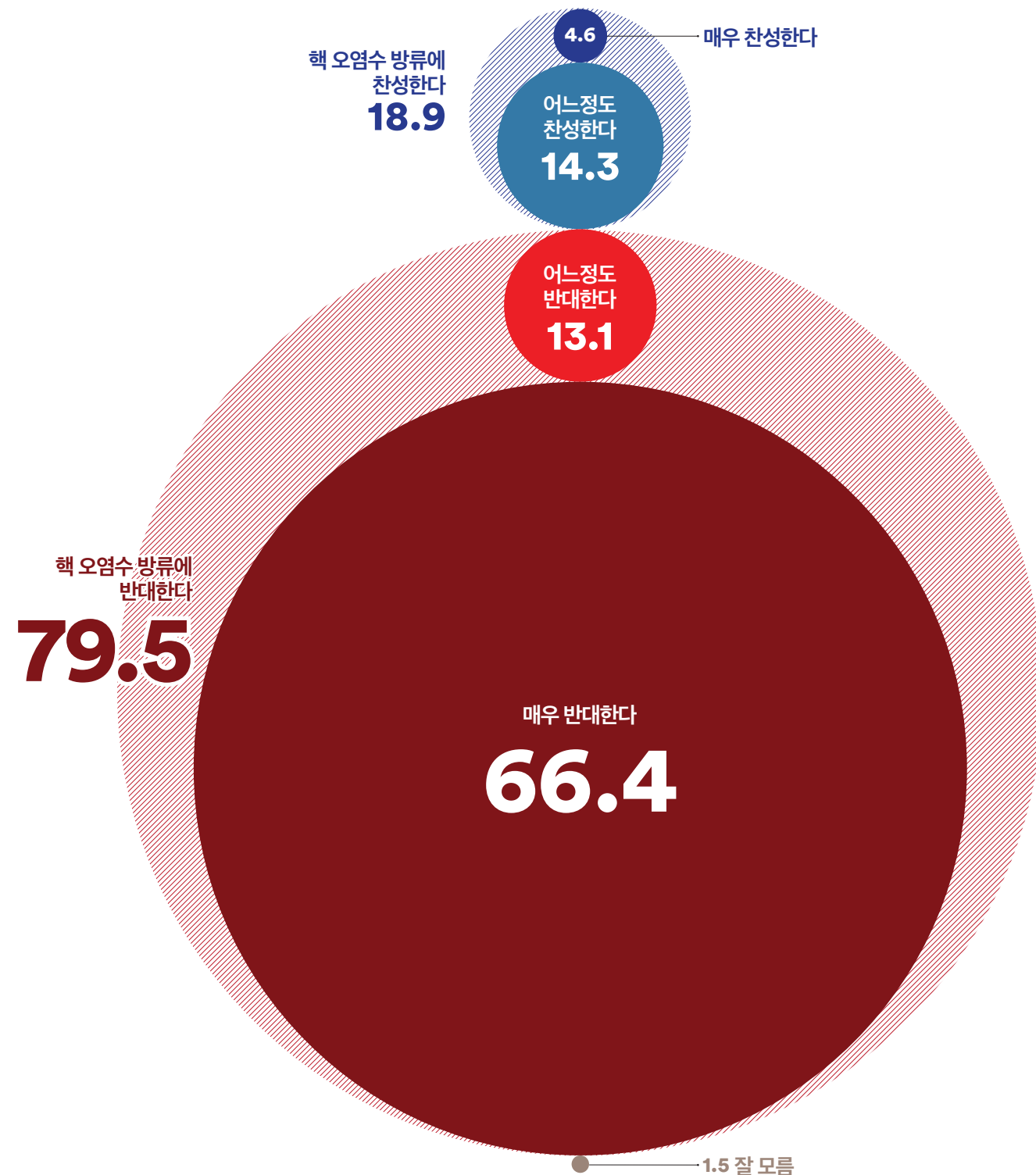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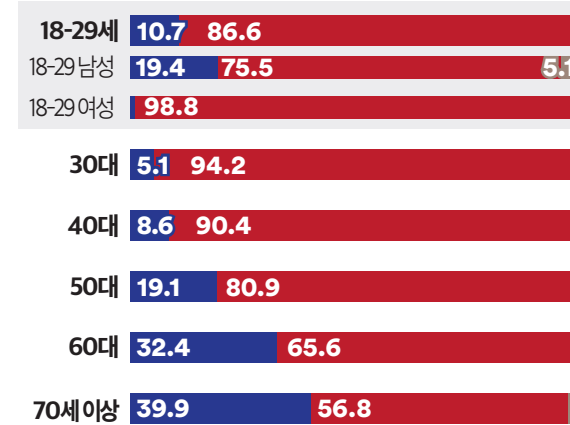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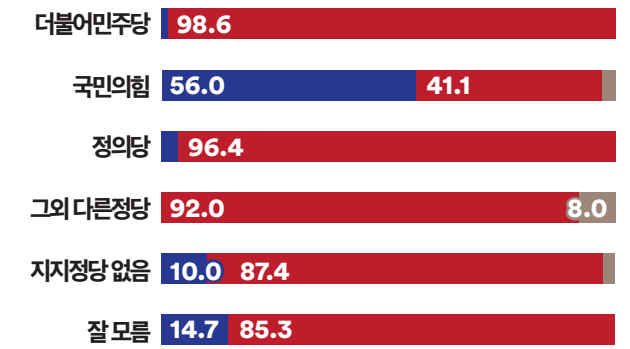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정도가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모든 권역과 연령, 성별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한다'는 응답 56.0%로 우세, 보수층은 '반대한다'는 응답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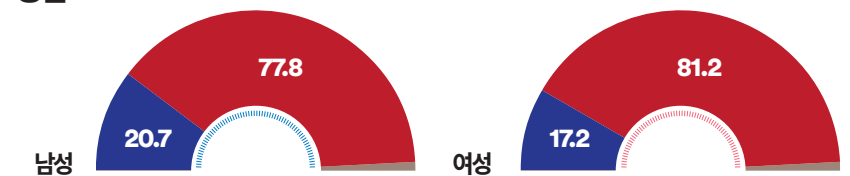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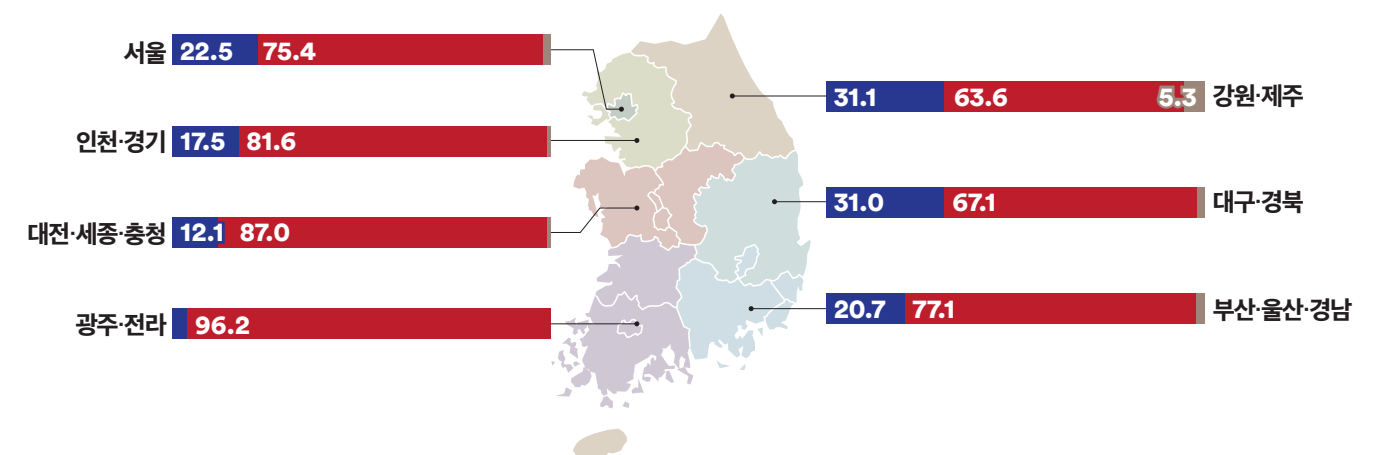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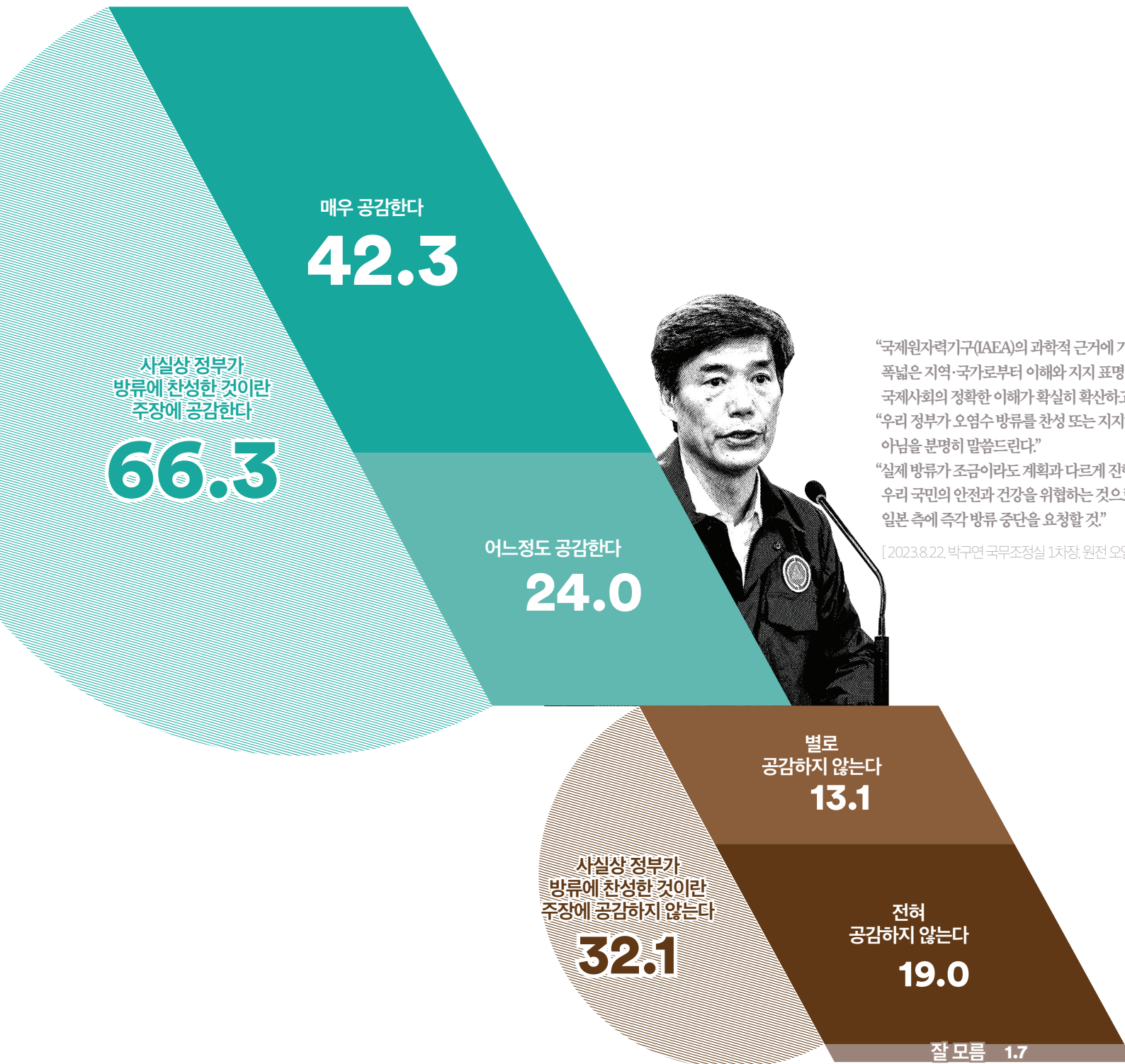
권역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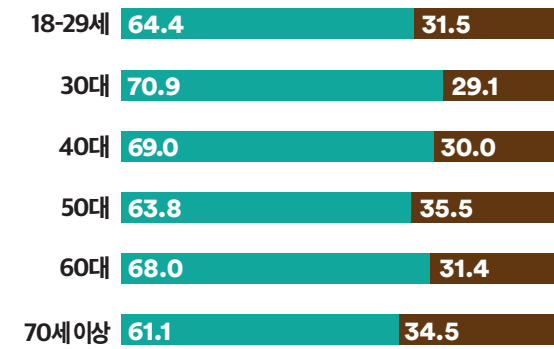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정부의 입장

Q. 정부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지만, 방류에 찬성,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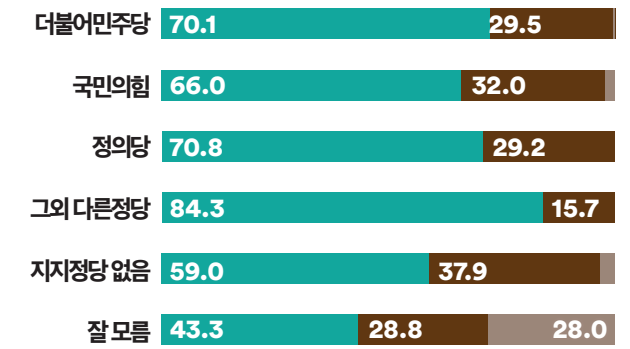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사실상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 것이란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모든 권역, 연령, 성별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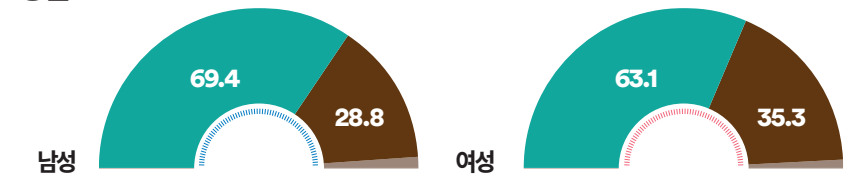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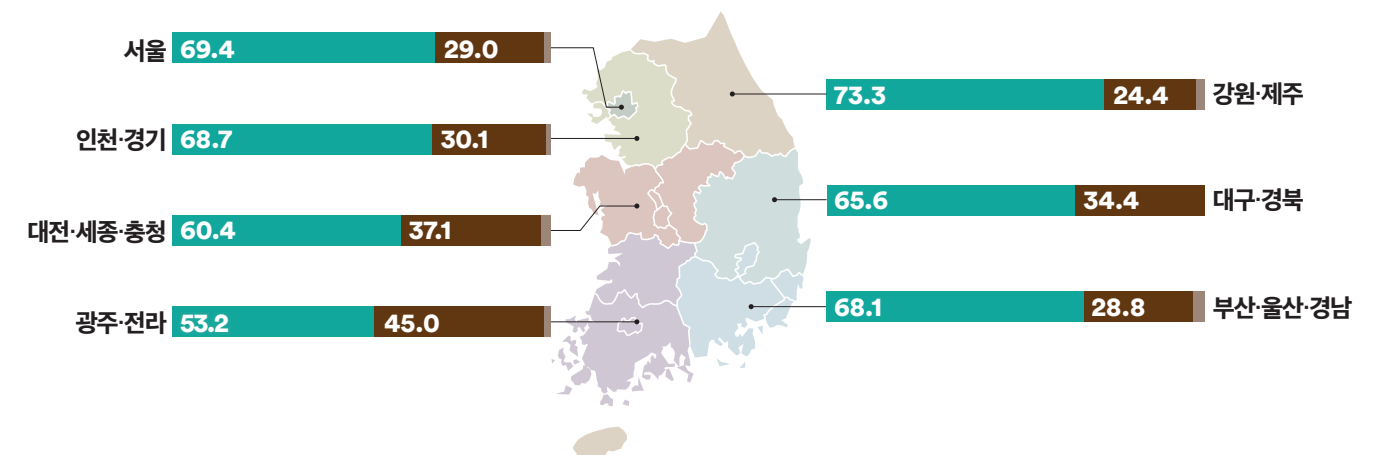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Q.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

59.8

어느정도 공감한다

25.0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38.5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2.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3

1.7 잘 모름

2.8 잘 모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6

어느정도
공감한다

15.7

32.8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한다

34.8

매우 공감한다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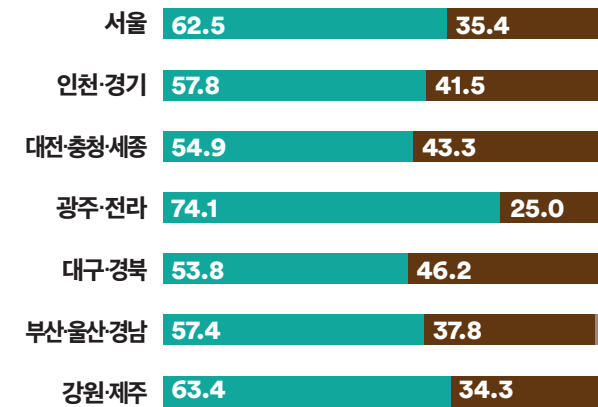
64.4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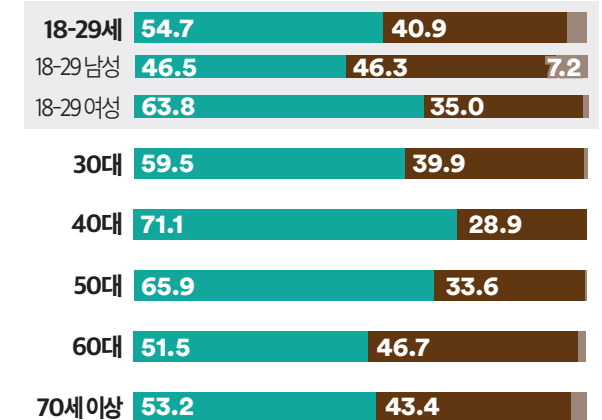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은 '우리 정부가 강력 반대했다면 일본이 쉽게 방류하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

모든 권역과 연령, 성별에서도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권역



연령



성별

남성

57.5

41.0

여성

62.0

36.1

성별

남성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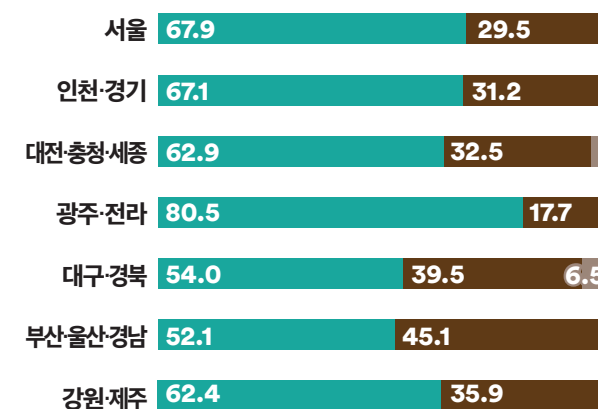
37.0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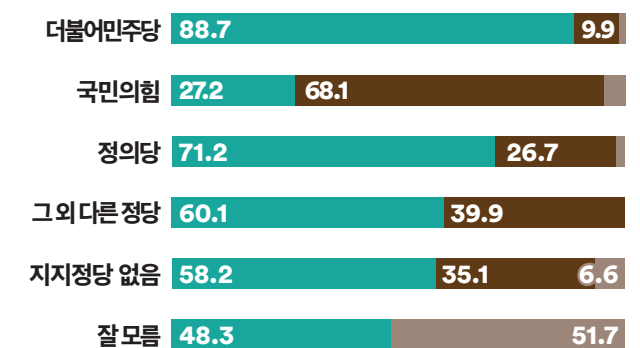
67.3

28.7

권역



정당지지도



공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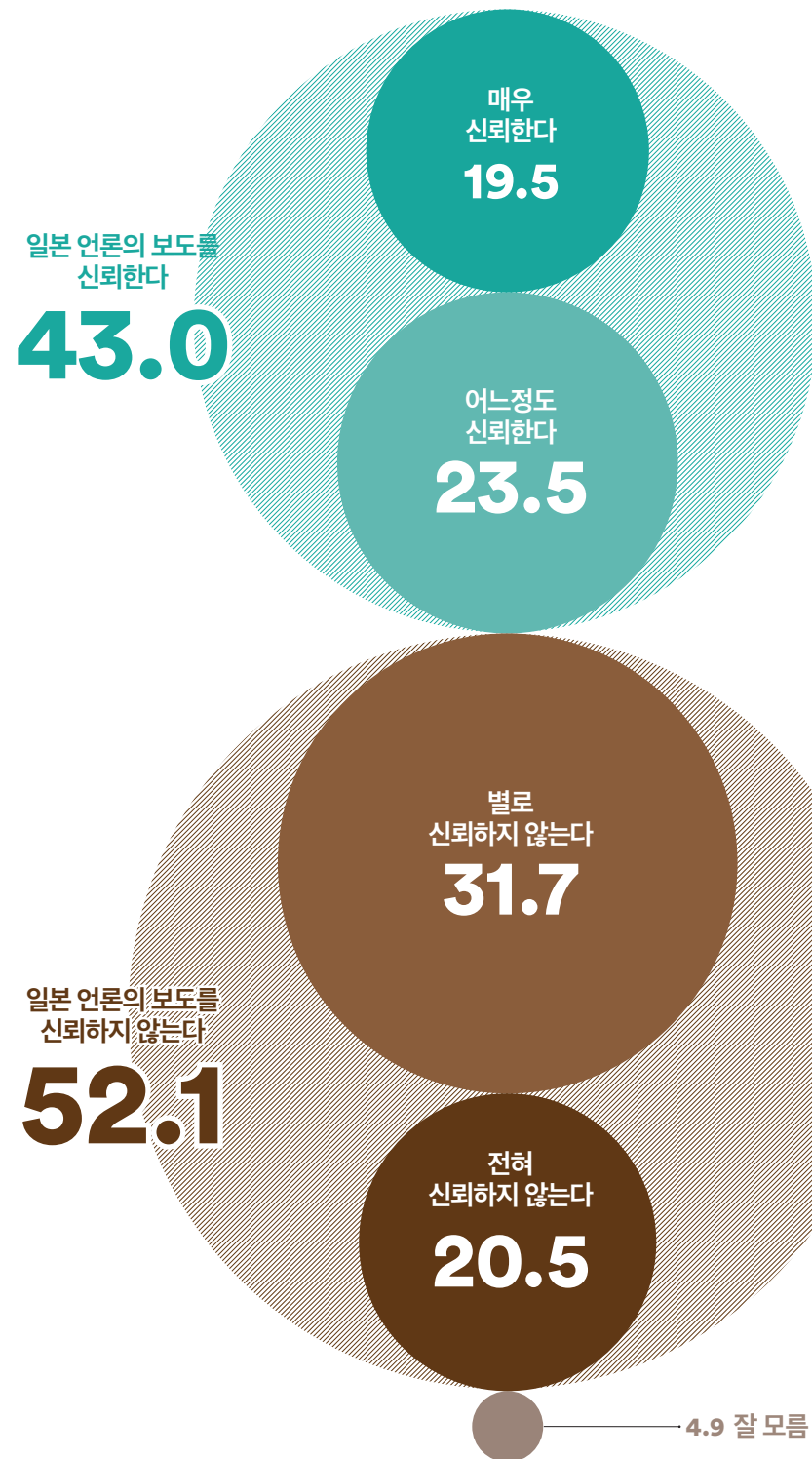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일본 언론보도: 정부의 조기방류 요청

Q.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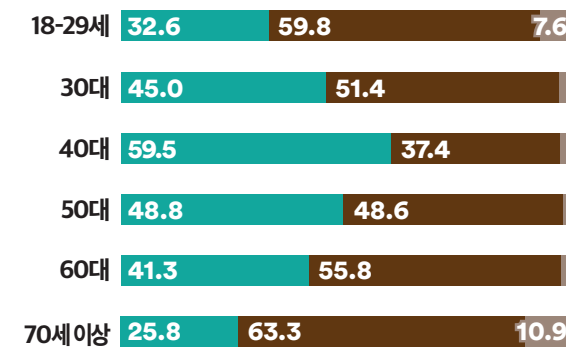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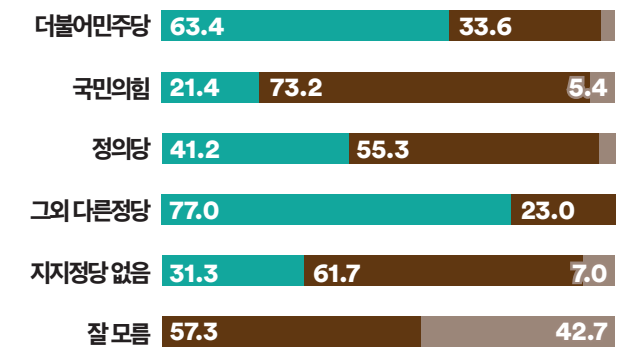
[2023.8.17, 아사히 신문, 하코다테츠야 논설위원 글 발췌]

10명 중 5명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4명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신뢰한다’고 응답
4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18세~29세와 70세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신뢰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중도층·무당층은 ‘신뢰하지 않는다’ 앞섬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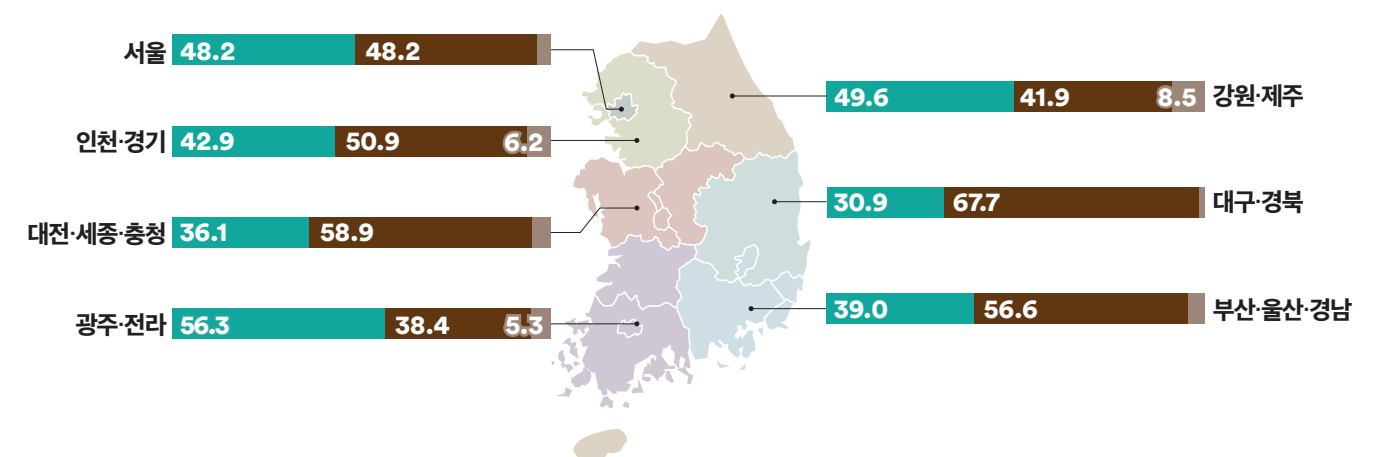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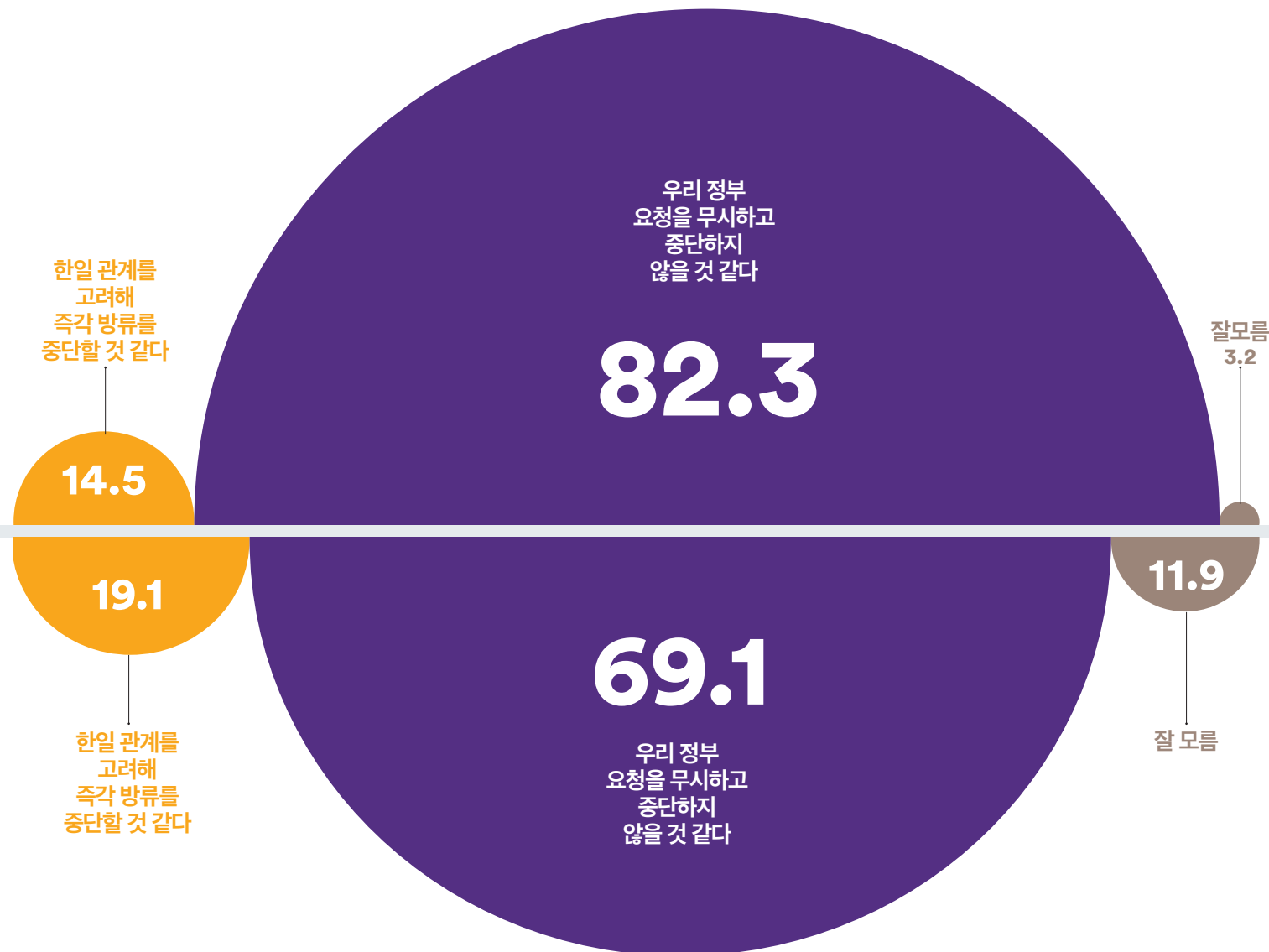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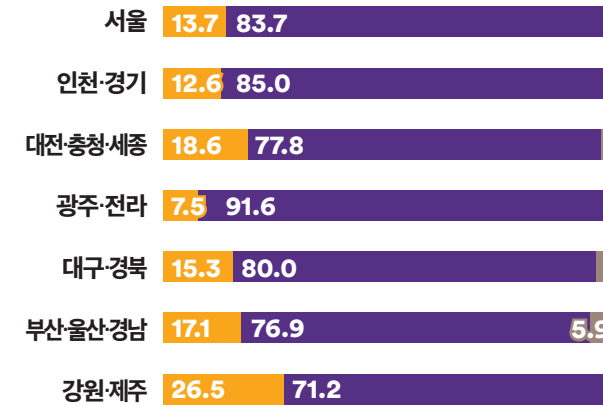
Q.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시 방류 중단을 일본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류 중단요청을 한다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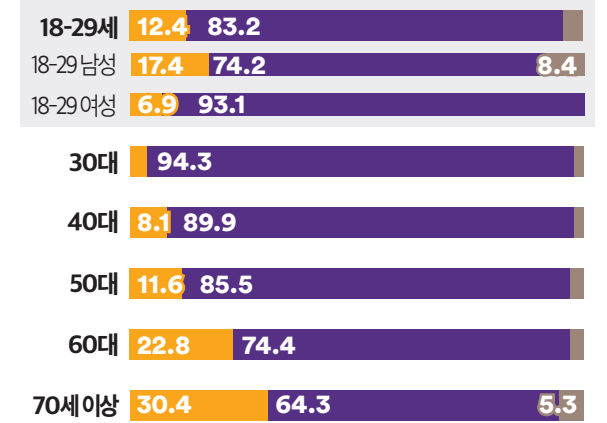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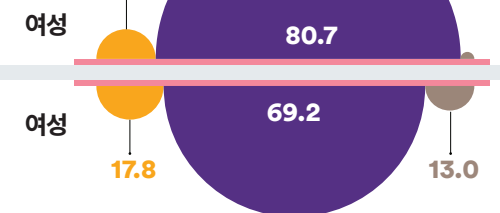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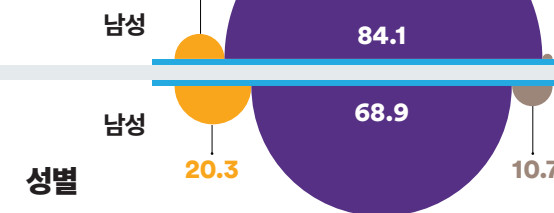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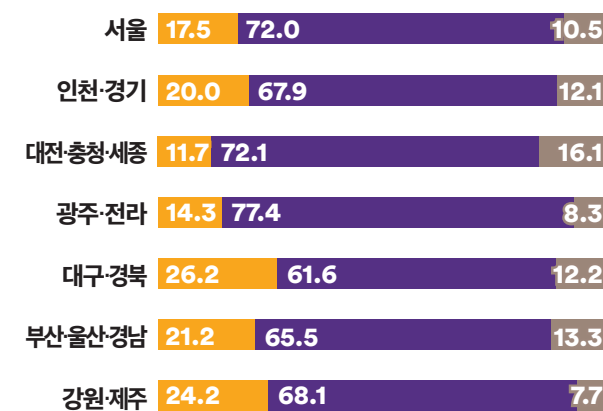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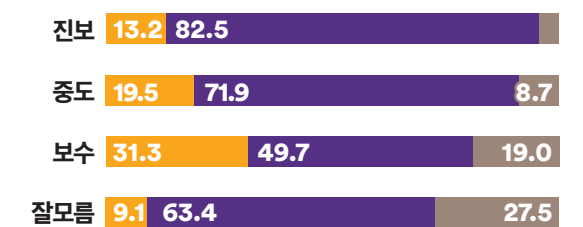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중단할 것 중단하지 않을 것 모르겠다

두 조사 모두 '일본은 방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압도적 우세 (격차: CATI 67.8%p, ARS 50.0%p)

세부 지표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우세



핵오염수 방류와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Q.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다

37.1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방안이다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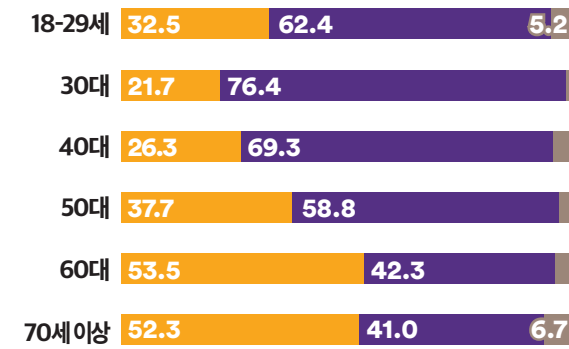
4.3 잘 모름

10명 중 6명 정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방안이다'고 응답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한 방안'이란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절한 방안', 60대 이상은 '적절한 방안'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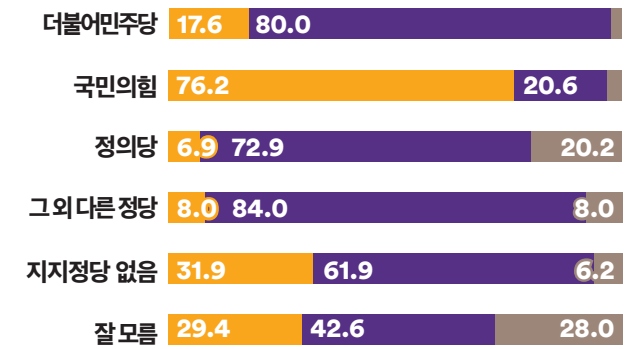
“우리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야 될 것 아니겠나”
“또 다른 대기업들, 특히 사업장이 큰 곳 같은 데에서 우력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발벗고 나가서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신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우리 수산물 소비 부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소비 촉진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다.”

[2023.8.23,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뉴스라이더>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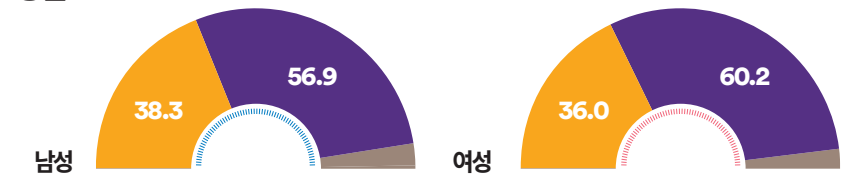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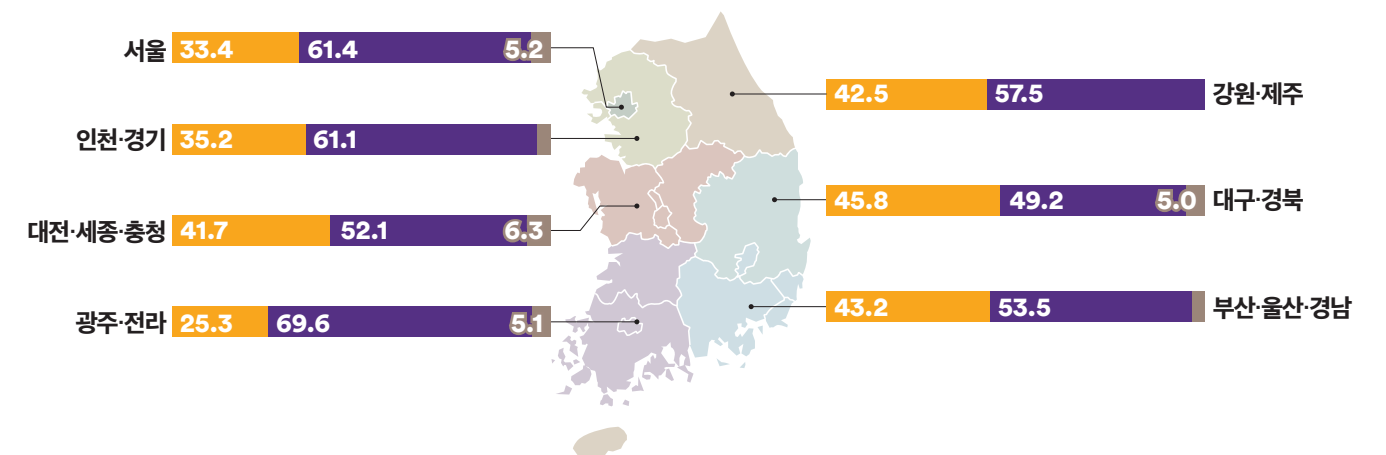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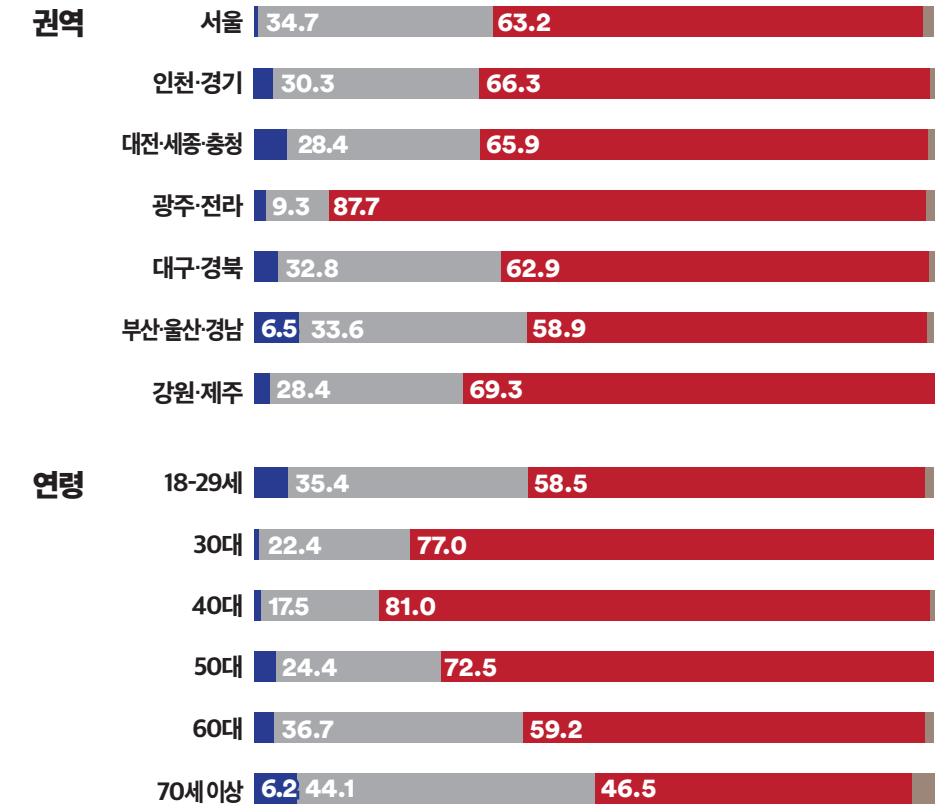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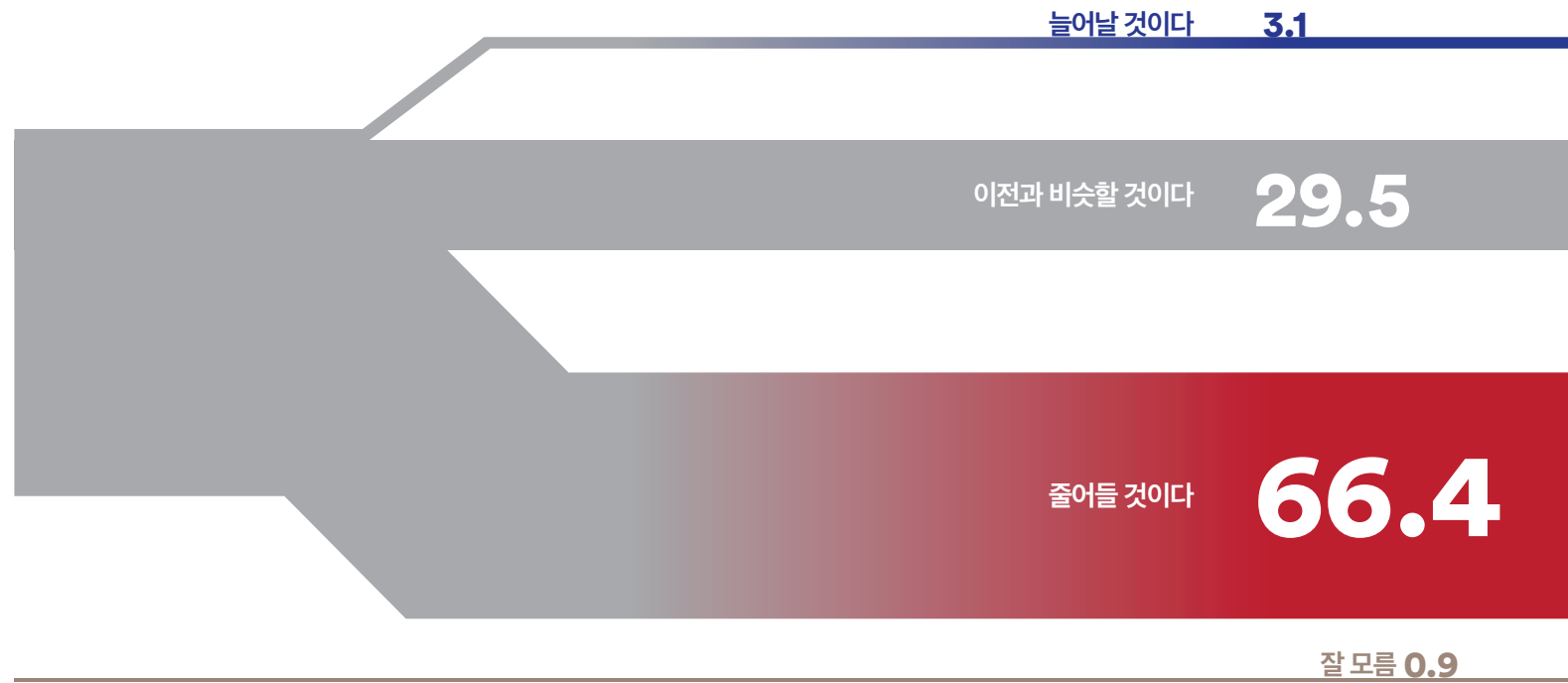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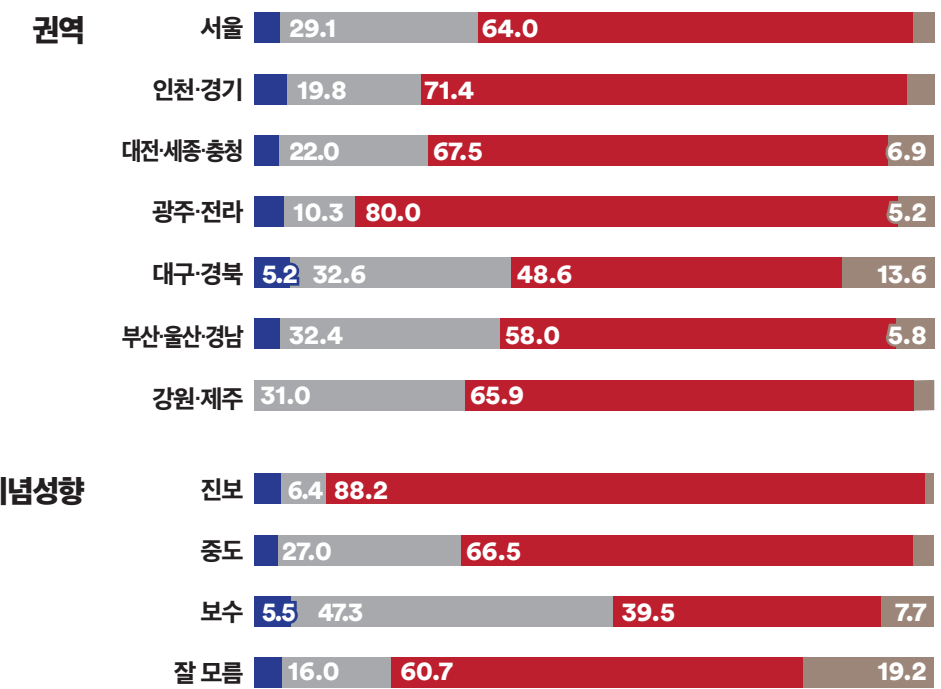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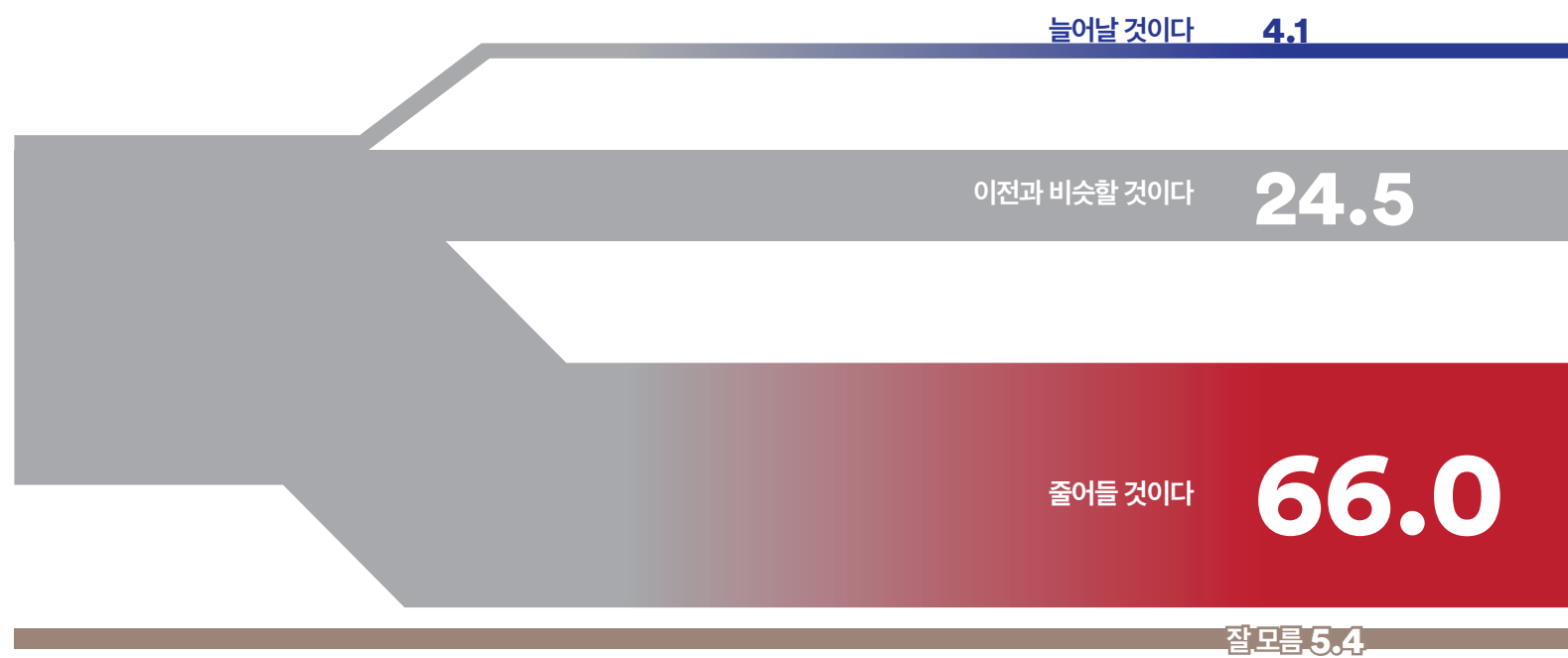
적절한 방안 부적절한 방안 잘 모름

Q. 향후 귀댁의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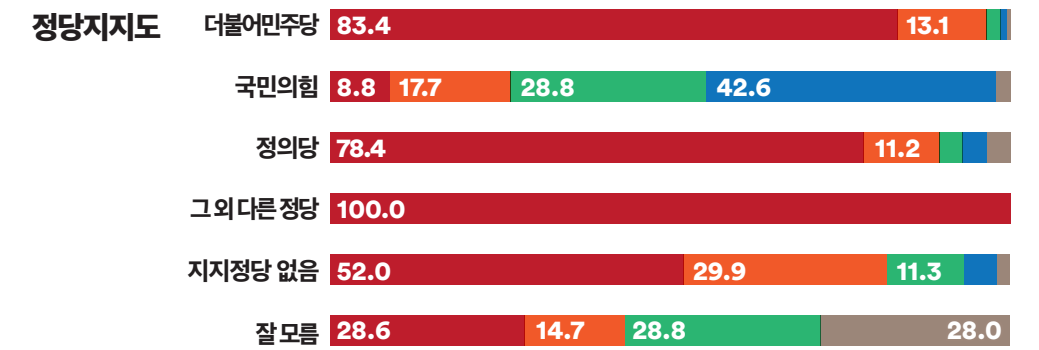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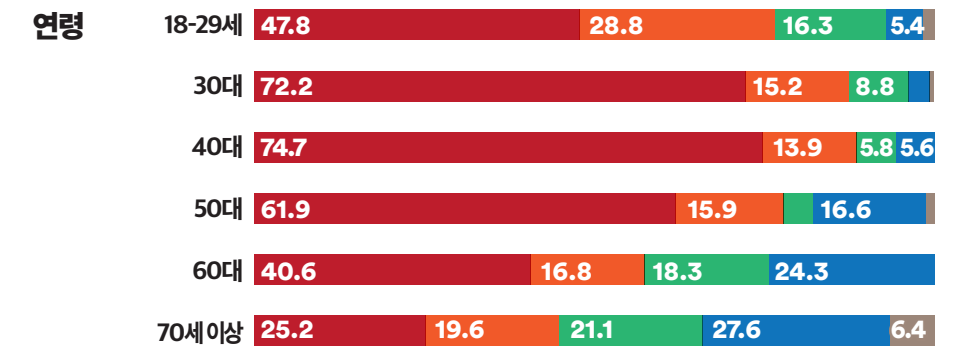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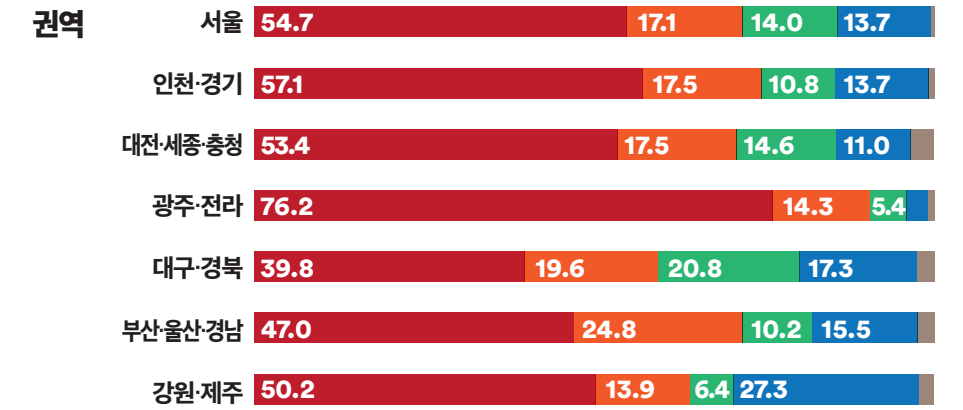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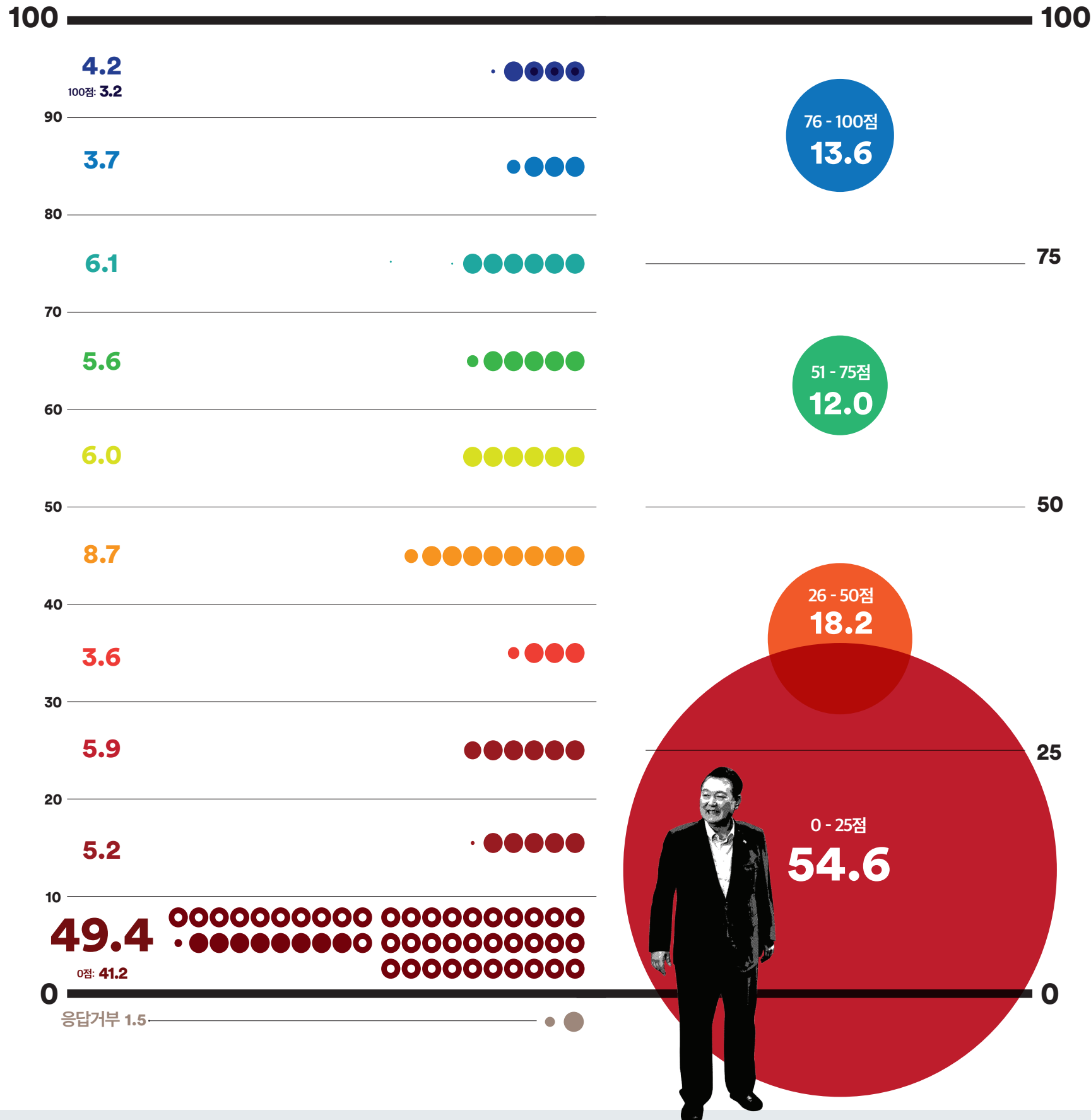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해 '이전과 비슷할 것', '늘어날 것' 대비 큰 격차를 보임
모든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줄어들 것'이란 응답 앞섬

늘어날 것, 비슷할 것, 줄어들 것, 모르겠다



Q.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25점 26-50점 51-75점 76-100점 응답거부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8월 종합 분석



CATI & ARS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1$

정례조사 기준 ARS $n=4017$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8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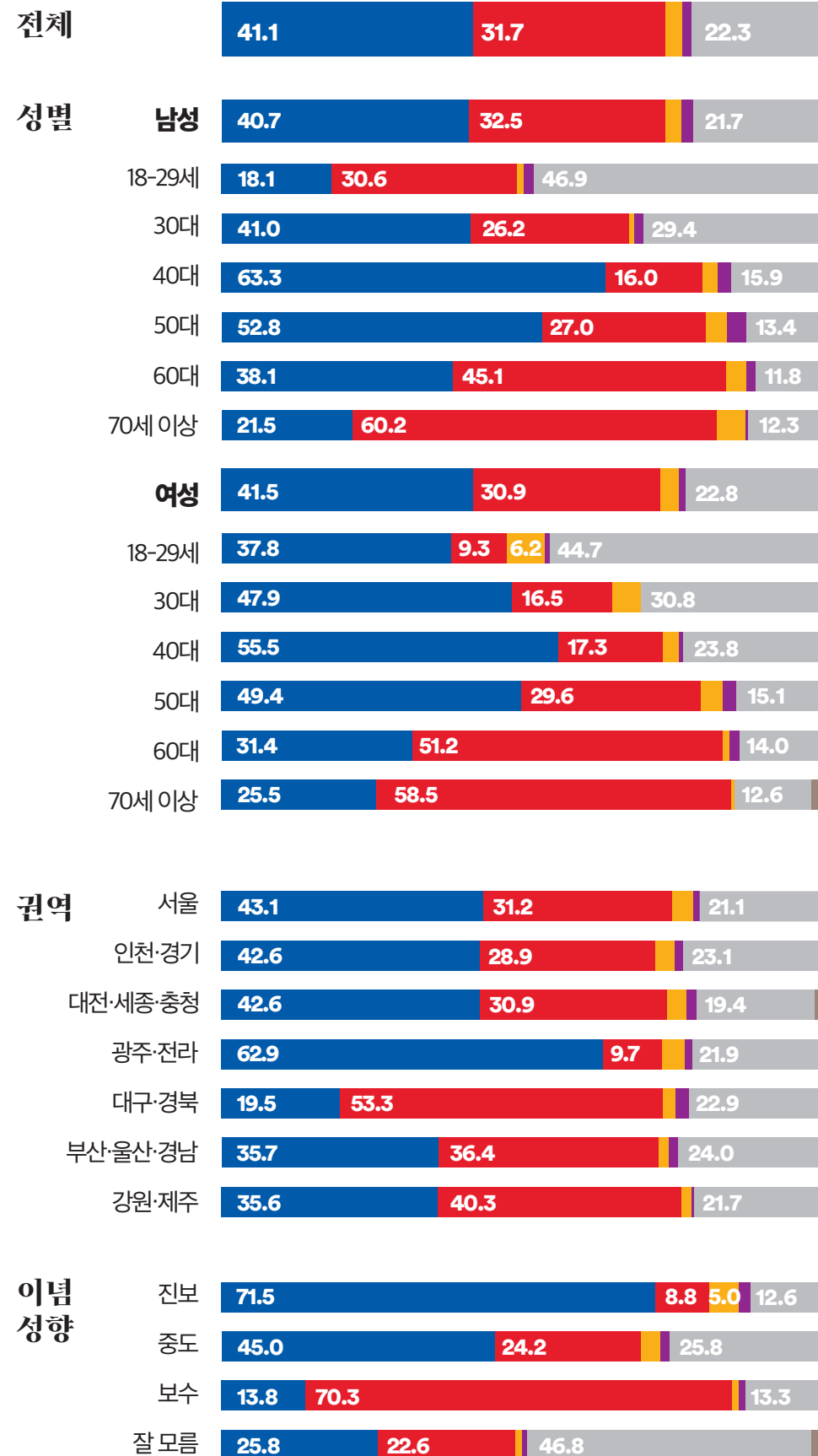
CATI

정례조사 기준 n=4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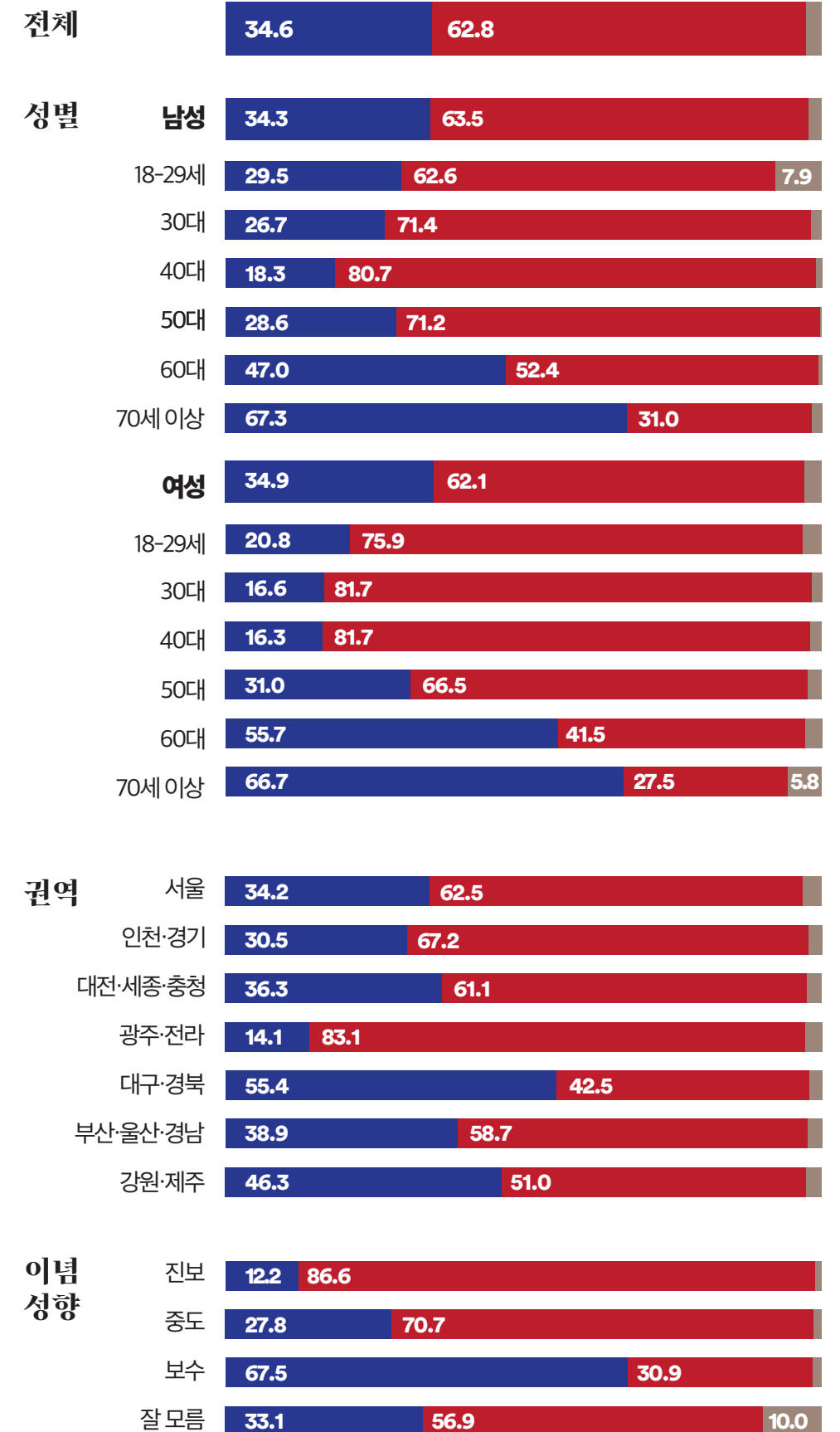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8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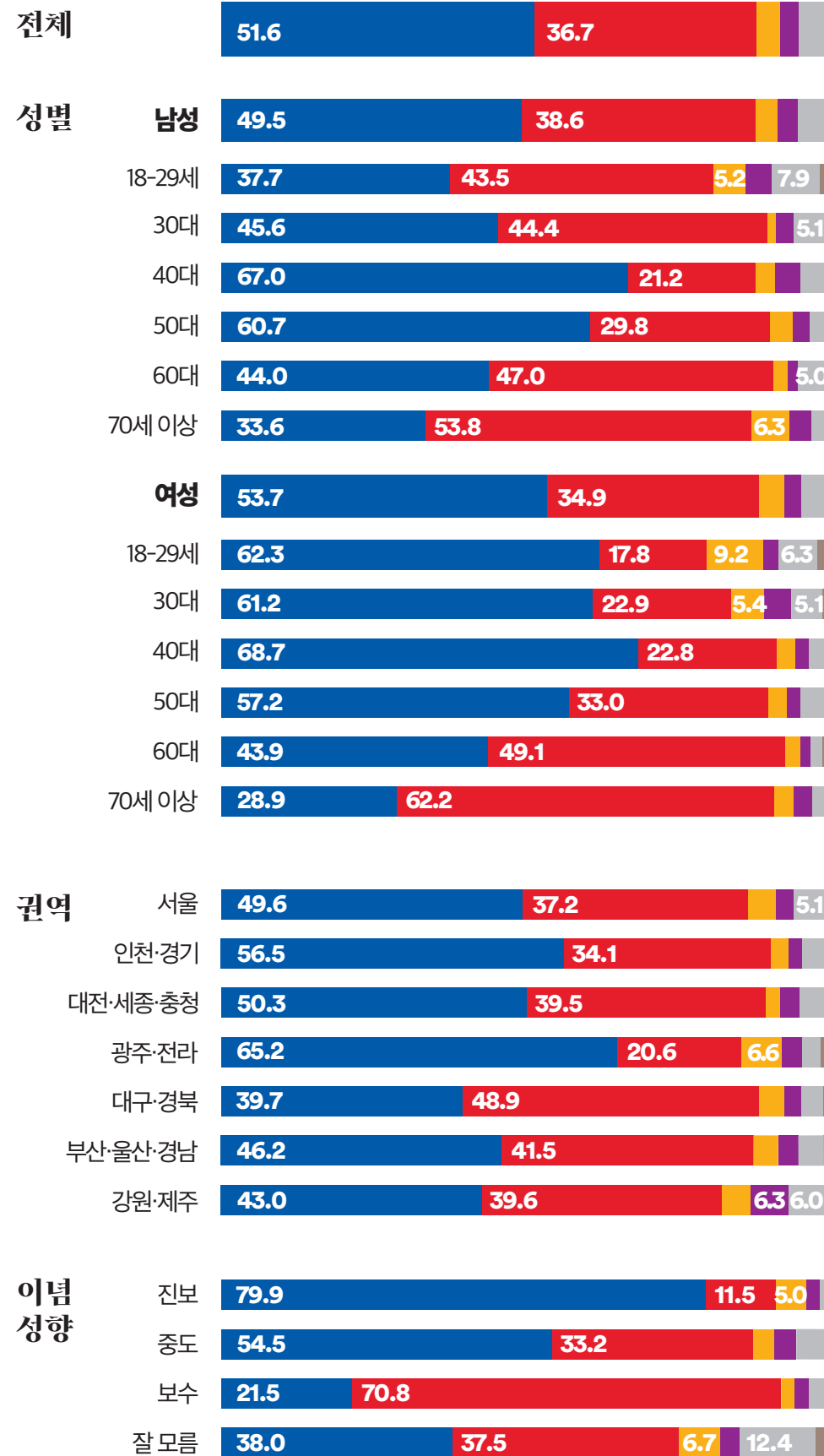
ARS

정례조사 기준 n=4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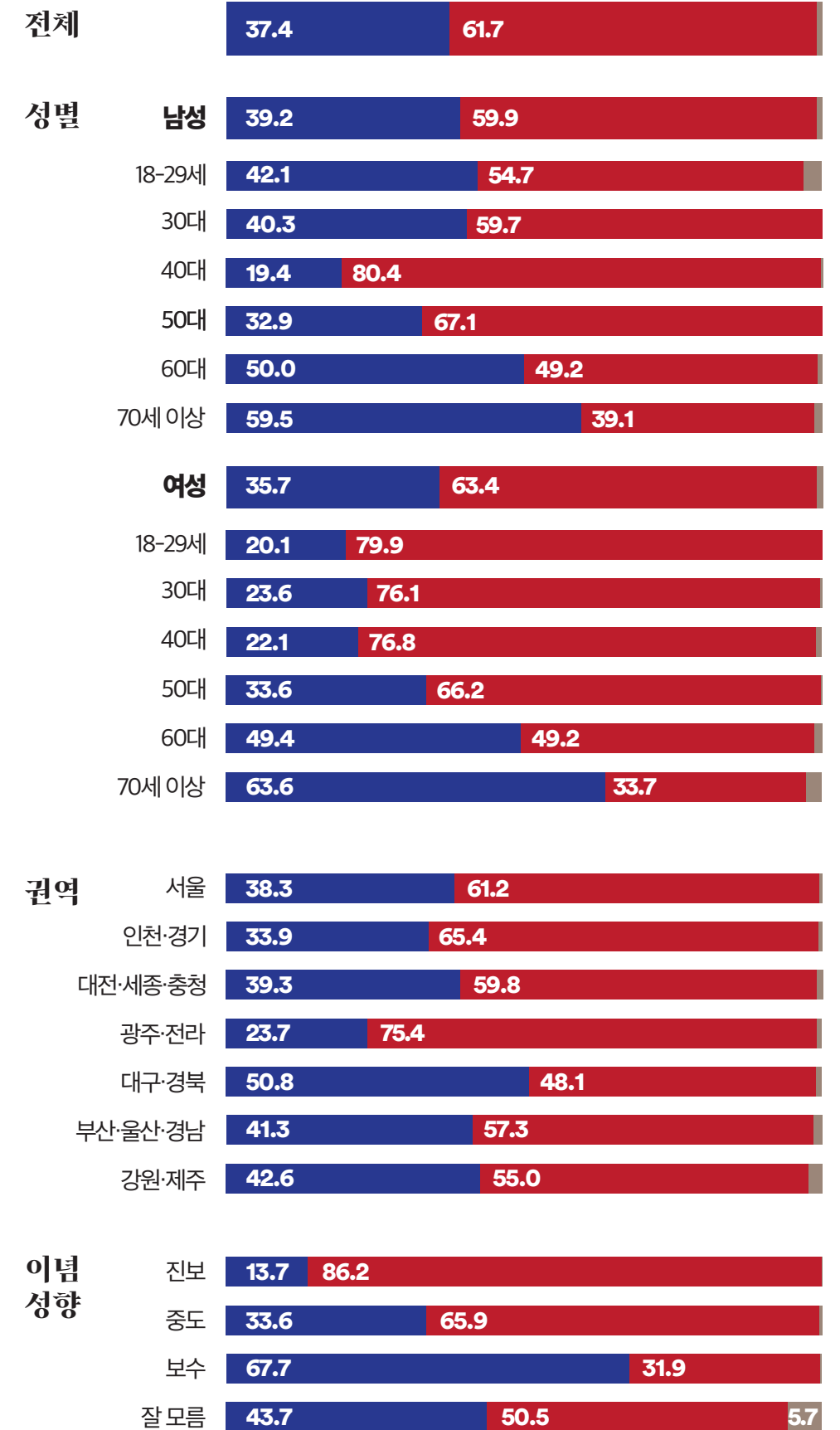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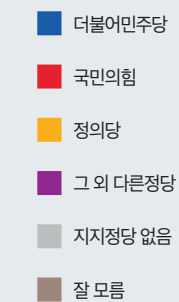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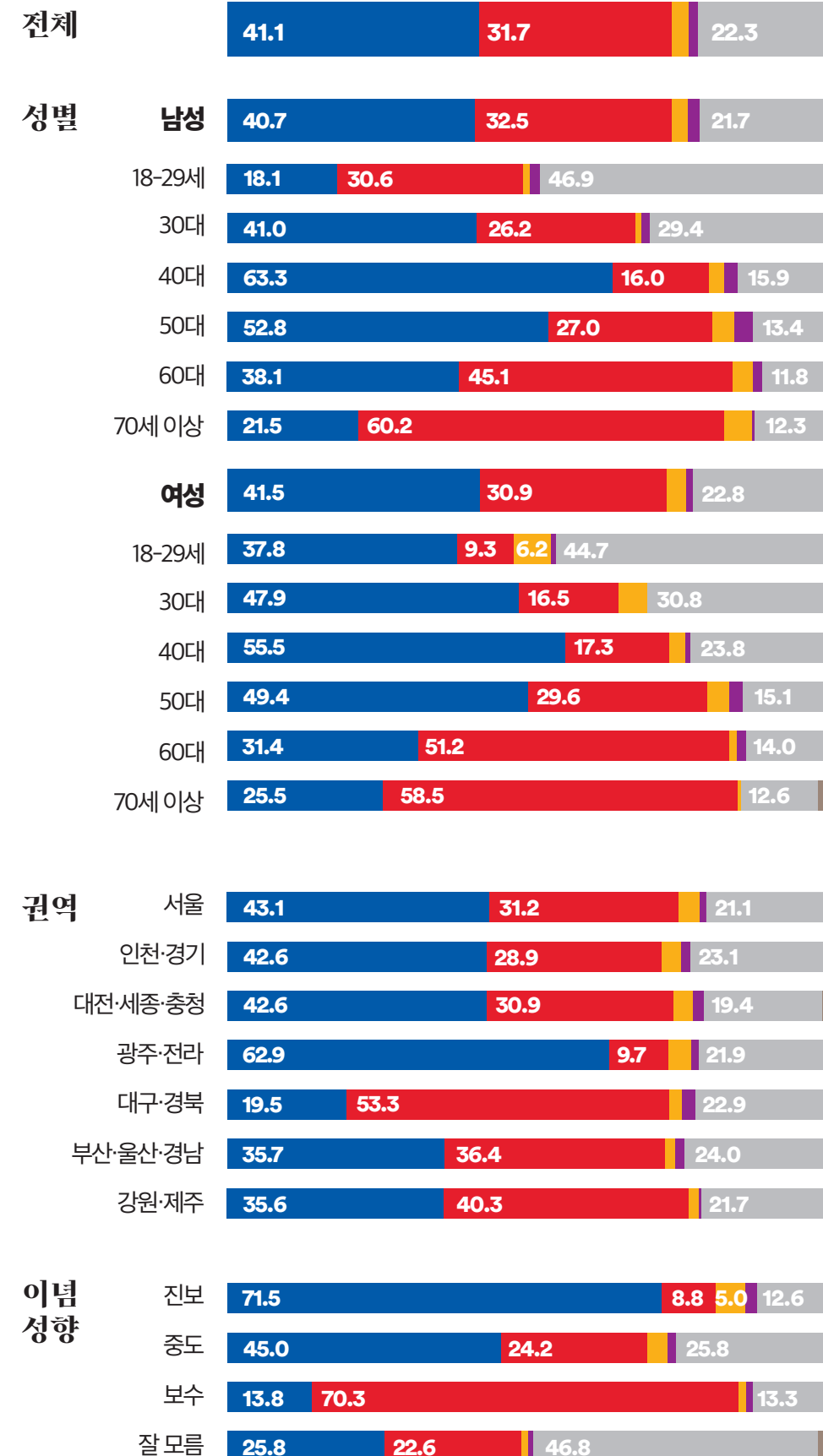
8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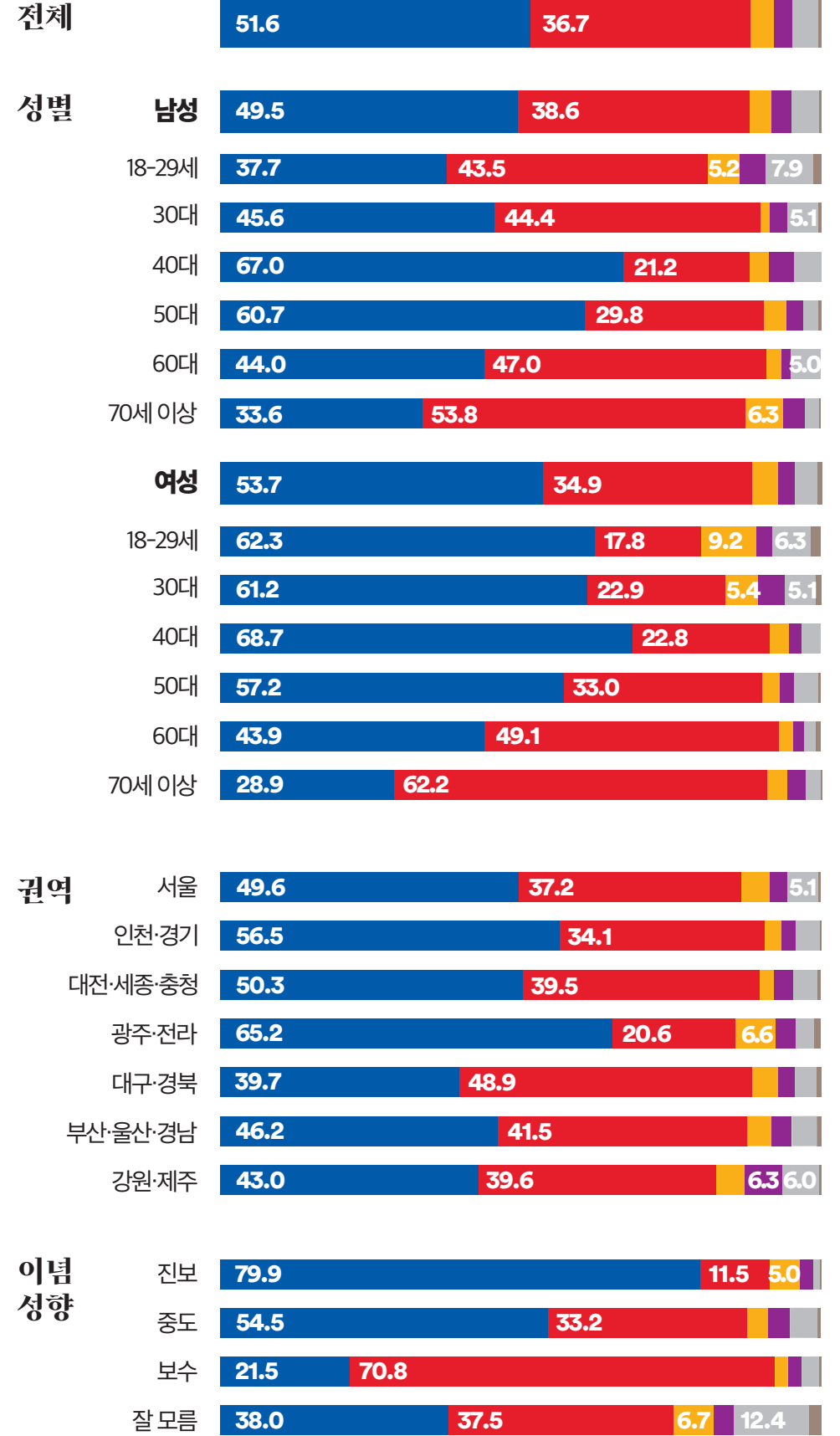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1
정례조사 기준 ARS n=4017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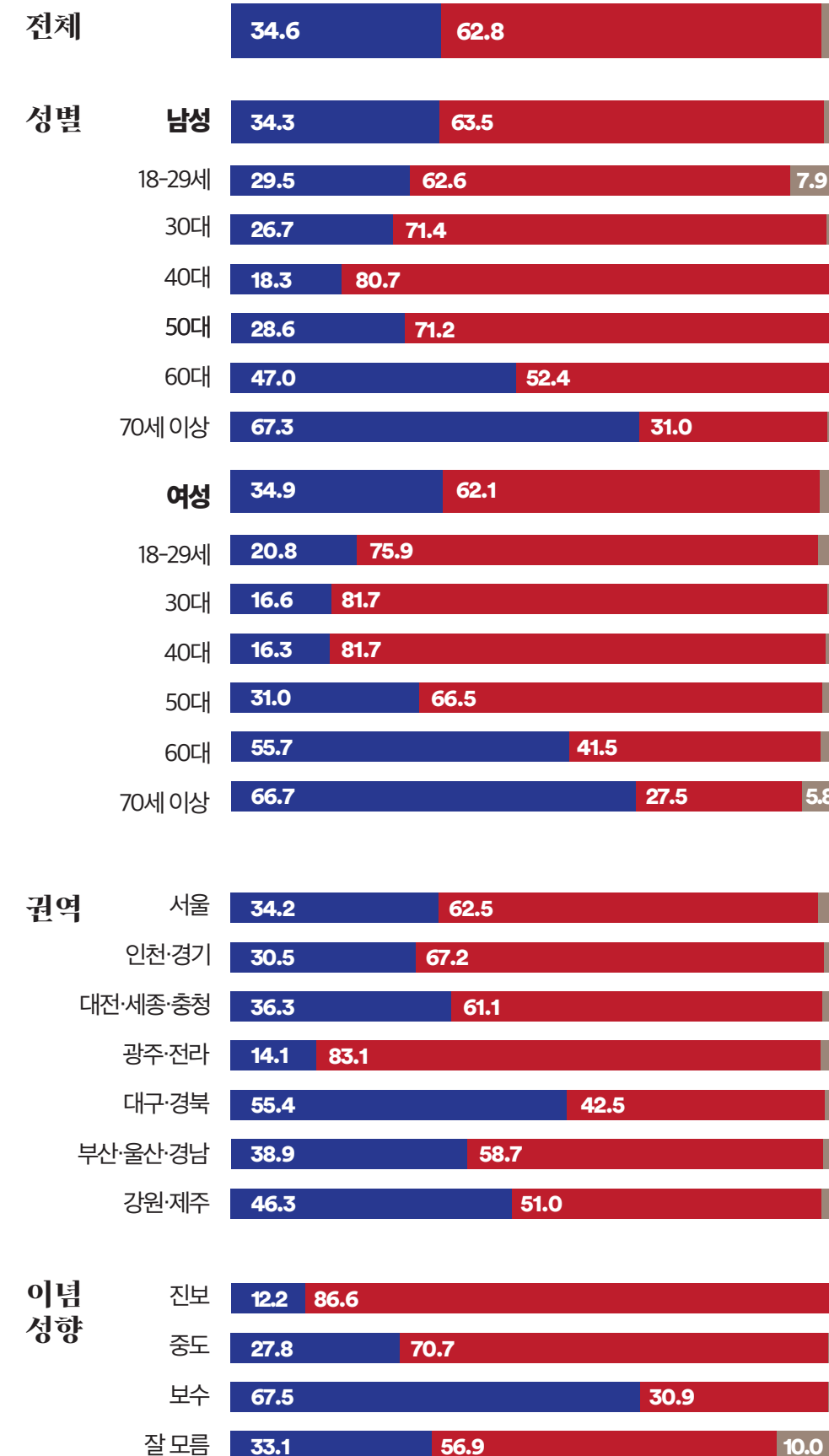
8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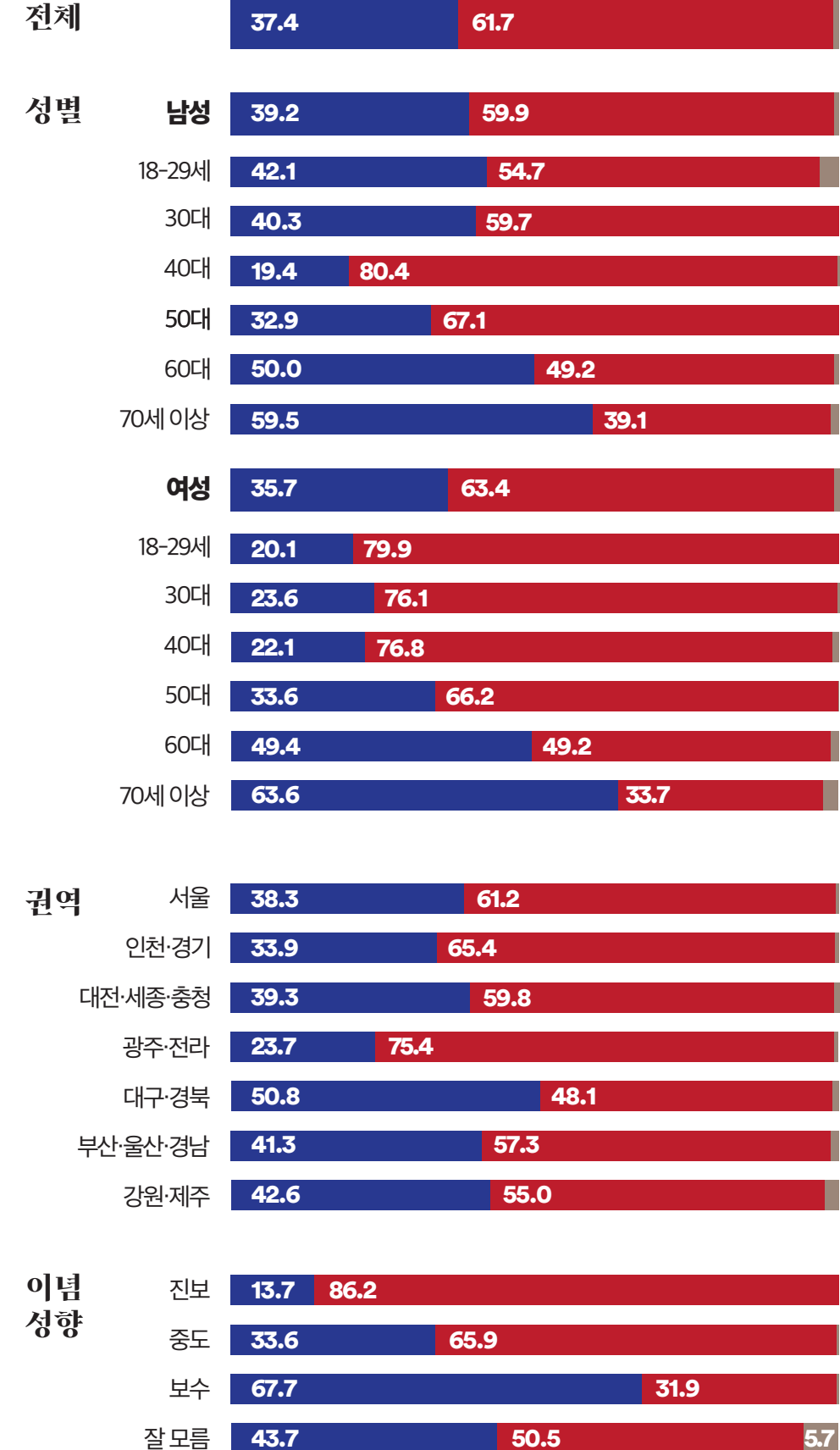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1
정례조사 기준 ARS n=4017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CATI



ARS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8_07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